

##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세계시민사회의 역할

아라이 신이치  
(일본, 공동대회장, 스루가타이대 명예교수)

제1회 역사관련 NGO 세계대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돌이켜 보면 역사 문제 해결에 큰 전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문제가 어려운 외교적 대립으로까지 발전해 온 동북 아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7년 10월, 일본 후쿠다(福田) 수상은 최초의 외국 방문 국으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것을 환영하여 일중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호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한국 이명박(李明博) 대통령도 취임 후, 방일하여 후쿠다(福田) 수상과의 회담에서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간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결의를 공표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6자 협이나 남북경제협력 등 북동 아시아의 평화 질서 수립이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에 관한 각국 수뇌의 발언으로 「과거 극복」이나 「과거 청산」을 대신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데 사용 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금년 5월에는 중국의 호금도(胡錦濤)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으로서 10년 만에 방일하였습니다. 역사문제는 심각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공동 성명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국가간의 안정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북동 아시아의 평화 질서라고 하는 목표에 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의미로 작년 이후 3국 수뇌의 움직임은 평화와 우호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역사의 직시」는 역사 문제를 정치 문

제와는 별개로 대화에 의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는 의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착이 반드시 역사 화해와 결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각각 정부간프로젝트로서 역사 공동연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의 공동연구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간프로젝트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회 한일 역사 공동연구가 시작될 때, 일본의 경우에는 위원의 인선에 대해, 우리는 「양국의 전문적인 연구단체, 역사학회, 역사 교육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요망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이것에 답변하지 않고 자의적인 인선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를 읽어보면 특히, 근대사에 대해 정부의 주장을 반영한 논의가 반입되어 대화가 정체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전에서의 「직시」라고 하는 의미는 「눈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르게 응시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사실을 「올바르게 응시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역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3국의 역사·문화의 차이가 사실확정, 사실해석에 대해 많은 차이를 낳고 있음에도 틀림없습니다. 그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이로부터 「눈을 외면하지 말고, 바르게 응시해」 차이의 역사적 유래에 대해 냉정하게 탐구하여 쌍방이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이에 대한 인식의 공유는 성과 있는 역사 대화의 길을 열 것입니다.

나는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간프로젝트보다 시민간의 역사 대화와 협력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역사 인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서 충분히 회로가 열리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역사 공동연구에도 그러한 요소는 전무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정치에 그러한 방향을 선택하여 확대시킬 책임도 시민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역사 관련 NGO의 차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역사 문제가 글로벌화를 재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동 아시아에 관계하는 것만으로도 작년 7월 미국의회 하원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 결의가 중요했습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EU의회가 같은 결의를 가결했습니다. 각국 결의는 모두 일본의 역사적 책임의 수락과 역사 교육, 역사 교과서의 발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키나와전 때, 일본군의 강제로 인한 주민 집단 자결에 관한 기술(記述)을 둘러싸고, 오키나와 현민이 반대하여 정부의 역사 교과서 통제에 근본적인 의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2회 대회는 역사문제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해결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 관련 NGO가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협력이 가능한가를 토의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Keynote Address – English

### *The Role of Global Civil Society towards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East Asia*

Shinich Arai

(Japan, Co–Chair, & Professor of Surugadai University)

It has passed one year since the first World NGO convention on history. Recalling the past one year, it is believed that there will be a big conversion in solution of issues of history. North East Asia is not an exception where issues of history have developed up to difficult diplomatic confrontation. In October 2007, Japanese Prime Minister Fukuda had selected China as his first foreign country to visit. China government also had welcome this and re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China as the future oriented 「strategic reciprocation relation.」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had proclaimed determination to open a new period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vision for the future instead of the past at the meeting with Prime Minister, Fukuda by visiting Japan after inauguration. On Korean peninsular, it is expec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peaceful order of the North East Asia will be achieved through 6 Parties Talks for the purpose of solving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or South North economic cooperation. Because of comments on issues of history by the head of each countries, 「looking straight into the history of the past」 is now used more frequently instead of the expressions of 「overcoming the past」 or 「liquidation of the past.」

In May this year, President Hu jintao of China had visited Japan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as Chinese President. Issues of history was not dealt as serious point of arguments but was mentioned as 「look straight into the past history」 in the joint communiqué.

Goal of peaceful order of the North East Asia cannot be reached without continuous efforts to maintain stable relations between nations. In that sense, movements of the heads of three countries

since the last year can be evaluated as the promotion of peace and friendship.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looking straight into the history」 means desires to find solutions in dialogues separately from political issues. However, what we are worrying is that political closeness does not necessarily link to conciliation of the history.

Among Japan, China, and Korea, joint study on the history is carried out as inter-governmental project of each country. But to be frank, I rather feel limitation as inter-governmental project regarding the joint study until now. For example, when we started the first joint Korea-Japan study, we had asked Japan in the s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to compose of 「people who represent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e, history society, and history education,」 but Japanese government did not reply to this request and selected people under their own criteria.

As the results, we have strong impression that dialogues are suspended as discussions reflecting the governments' arguments, in particular, on the recent history are included when we read the report.

In dictionary, 「looking straight」 means 「to look correctly without avoiding the eyes.」 It is most important to start from 「looking correctly」 at the historical facts in solving issues of the history. At the same time, it is true that differences of three countries in history and culture bring about lots of differences in confirmation of facts and interpretation of facts. In order to solve problems of that difference, it is necessary to share common recognition mutually by exploring historical origination of that difference in stride by 「looking correctly without avoiding the eyes」 from the difference.

Sharing recognition for the difference will open a path for dialogue of history with resulting accomplishments.

I think that dialogues of history and cooperation between citizens are more appropriate than the project between governments for solving issues of history.

Is it more desirable to have sufficient communication channels opened from diverse attempts for sharing recognition of history practiced on the level of civilians so that the governments' project can become successful? In the joint study of history now under progress, there are some of such elements. In addition, it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citizens to select and expand such directions in politics on the contrar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t is now the turn of NGO related to the history. Issues of history are reproducing globalization in the world. Resolution about Japanese 「comfort women」 at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 July last year was important as it was related to the North East Asia. Canada, Netherlands, and Congress of EU had the same resolutions. Resolution of each country mentioned the importance of Japanese acceptance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and fundamental improvement in Japanese education of history and textbooks of history is necessary. In Japan, surrounding description about collective suicides of residents by the force of Japanese army

during Okinawa battle, control of history textbook by Japanese government has left fundamental question due to the protest by residents of Okinawa prefecture. In this second convention, I wonder how people think about the situation that issues of history are becoming globalized? How history related NGO of the world is reacting for the solution? And also I sincerely expect that this can be a venue to discuss about what kinds of cooperation are possible and to come up with some accomplishments.

## Keynote Address – Chinese

Shinich Arai

(Japan, Co-Chair, & Professor of Surugadai University)

距第1届历史相关NGO国际大会召开，已过了一年的时间。回顾这一年，在历史问题的解决方面有了大的转变。历史问题发展到外交对立的东北亚也并非例外。2007年10月，日本福田首相作为首次访问国家选择了中国，而中国政府也给予积极回应，重申中日关系是展望未来的“战略互惠关系”。韩国的李明博总统就任之后也访日，并在与福田首相的会谈中达成共识，相比过去历史，更重未来愿景，从而开创韩日间的新时代。韩半岛有望将以北韩的核问题解决为目标，制订6方会谈或南北经济合作等东北亚的和平秩序。关于历史问题，各国首脑的发言也从“克服过去”或“清算过去”逐渐转变为“正视历史”。

今年5月份中国的胡锦涛主席访日，这是10年来中国国家主席首次访日。在会谈中历史问题并没有成为深刻的争论点，在共同声明中也说到“正视历史”。

除非不断努力保持国家之间的稳定关系，否则我们无法实现东北亚和平秩序的目标。去年以来三国首脑的动向，可评价为促进和平与友好的步伐。而“正视历史”可以说是不会相提并论历史问题与政治问题，通过对话寻找解决途径的意愿。但我们所担忧的是政治决定并不一定与历史和解能够协调起来。

日本、中国和韩国三国之间正在推进政府间项目即历史共同研究。但对于迄今为止的共同研究，我却感觉到因为是政府间项目，所以存在界限。例如开始第1届韩日历史共同研究时，关于委员人选，我们希望由“两国专门研究团体、历史学会、代表历史教育界的人士”所构成，而日本政府并未作出答复，肆意处理人选问题。

结果读报告书时，发现关于近代史，反映了政府主张，因此有强烈的对话迫使停滞的感觉。辞典里对“正视”的解释是，“用严肃认真的态度对待，不躲避，不敷衍”。在解决历史问题上，从“正视历史”出发是最关键的问题。而三个国家的历史、文化差异，又引发诸多事实确定、事实解释等方面的差异。为了解决那些差异，我们应“用严肃认真的态度对待，不躲避，不敷衍”，并冷静地探究历史由来，从而达成共识。

对差异的认识共享，将会开创富有成果的历史对话之路。

我认为，为了解决历史问题，与其推进政府间项目，不如开展市民间的历史对话与协作。为了使政府项目获得成功，应从民间的历史认识共有角度出发，尝试多种渠道，充分打开回路，这会不会更有可行性呢？当然，目前进行的历史共同研究也并非全无这些要素，反过来讲，市民也有责任扩大政治的相关方向。可以说如今轮到历史相关NGO反复历史使命。全世界范围内历史问题重演全球化，去年7月美国议会众议员讨论有关东北亚的日本“慰安妇”问题，这当时是非常重要的决议项目。加拿大、纽西兰、EU议会也做出同一个问题的决议。各国均决议，日本应该担负历史责任，并有必要对历史教育、历史教科书进行拔本塞源的改变。而在日本冲绳战期间，围绕日本军强行使住民集体自绝的记述，冲绳县民奋起反对，于是政府的历史教科书统制也留下了根本性的疑问。我衷心希望第2届大会可以成为，互相沟通和讨论历史问题的全球化趋势、为解决此问题历史相关NGO做出了怎样的应对措施、有什么样的合作可能性等问题的交流平台。

## Keynote Address – Japanese

Shinich Arai

(Japan, Co-Chair, & Professor of Surugadai University)

第一回歴史関連NGO世界大会から1年がすぎました。この1年をふりかえってみると、歴史問題の解決に大きな転換がおとづれつつあるようにおもえます。これまで歴史問題がしばしばきびしい外交的対立にまで発展してきた東北アジアも、例外ではありません。2007年10月、日本の福田首相は最初の外国訪問に中国を選びました。中国政府もこれを歓迎して日中関係を未来志向的な「戦略的互惠関係」とすることをあらためて確認しました。韓国の李明博新大統領も、就任早々に訪日し、福田首相とのあいだで、過去より未来にたいするビジョンを重視する韓日新時代を開く決意を公表しました。朝鮮半島では、北朝鮮の核問題の解決をめざす六者協議や南北の経済協力などが進展し、北東アジアの平和秩序樹立への展望が開けつつあります。

歴史問題についての各国首脳発言では、「過去の克服」や「過去の清算」にかわって「過去の歴史の直視」が使われることが多くなりました。今年5月には、中国の胡錦濤主席が、中国の国家主席としては10年ぶりに訪日しました。もはや歴史問題は深刻な争点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ことなく、共同声明では「過去の歴史を直視する」として言及されただけでした。

国家間の関係を安定させ持続させる努力なしには、北東アジアの平和秩序という目標に近づくことさえできないことはいまでもありません。その意味で昨年以来の三国首脳動きは平和と友好を促進するものとして積極的に評価したいと思います。また「歴史の直視」は、歴史問題を政治問題から切り離し、対話によって何らかの解決策を見出そうとする意欲を物語るものと思います。しかしわれわれが危惧するのは政治的な決着が必ずしも歴史和解と結びつかないことです。



日本と中国、韓国とのあいだではそれぞれ政府間プロジェクトとして歴史共同研究がおこなわれています。しかし率直に言って、私はこれまでの共同研究について、むしろ政府間プロジェクトとしての限界を感じています。たとえば第一回日韓歴史共同研究がはじまるときに、日本の場合でいえば、委員の人選について、私たちは「両国の専門的な研究団体、歴史学会、歴史教育界を代表する人びと」によって構成されることを要望しましたが、日本政府はこれに答えず恣意的な人選をおこないました。その結果、報告書を読むと、とくに近代史について政府の主張を反映した議論が持ち込まれ対話が停滞した印象を強くうけました。

辞書によれば「直視」は、「目をそむけないで、まともにみつめること」です。歴史の事実を「まともにみつめる」ことから出発することは歴史問題の解決にとってもっとも重要です。同時に、3国の歴史・文化の違いが事実の確定、事実の解釈についてさえ多くの違いを生んでいることも間違いありません。その違い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まず違いから「目をそむけないで、まともにみつめ」、違いの歴史的由来について冷静に探求し、双方が共通の認識を共有することがまず必要です。違いについての認識の共有は、実りある歴史対話への道をひらくでしょう。

私は、歴史問題の解決のためには政府間プロジェクトよりも、市民と市民との粘り強い歴史対話と協力がふさわしいと思っています。政府のプロジェクトが成功するためには、民間でおこなわれている歴史認識共有のためのさまざまな試みとのあいだに十分に回路が開けていることが望まし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現在おこなわれている歴史共同研究にも、そのような要素は皆無ではありません。また逆に政治にそのような方向を選択させ拡大させる責任も市民の側にあるでしょう。それこそ、まさに歴史関連NGOの出番だと言いたいのです。

世界的にも、歴史問題がグローバルに再燃している状況があります。北東アジアに関係するだけでも、昨年7月のアメリカ議会下院による日本の「慰安婦」問題決議が重要でした。続いてカナダ、オランダ、EU議会が同様の決議を可決しました。各国決議はいずれも日本の歴史的責任の受諾と歴史教育、歴史教科書の抜本的な改善の必要に言及しています。日本でも沖縄戦のときに日本軍が強制した住民の集団自決に関する記述をめぐる、沖縄県民が反対し、政府の歴史教科書統制に根本的な疑問が突きつけられました。

第二回大会は、歴史問題がグローバルに活性化しつつある状況をどのように考えるか、その解決のために世界の歴史関連NGOがいかに対処するか、またどんな協力が可能かについて討議し実りある成果を上げる場となるでしょうし、またそのことを心から期待しております。

## 일본 전후 책임론

왕시량

(중국, 중국흑룡강성사회과학원)

### 1. 전후책임 문제 제기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 (Karl Jaspers:1883 ~ 1969) 교수는 전쟁의 죄를 형사상의 죄, 정치상의 죄, 도덕상의 죄, 형이상학적인 죄, 이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것의 내용을 이야기 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쟁 책임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쟁 범죄의 법률상 책임뿐 아니라 전쟁이 인류사회에 끼친 정치, 도덕, 형이상적(자아를 초월하여 전쟁의 죄악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성하고 전쟁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이어가기 위해 역사의 진실성을 지켜야 한다.) 책임도 확실히 청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그릇된 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채 진정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평화 유지는 더욱 힘들어진다.

1931년부터 일본은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14년간 침략 전쟁을 도발했다. 1945년 일본패전 이후 전범재판, 일본의 국가개조, 식민지 해방, 전쟁배상, 전후복구 등 일련의 전후 처리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40년대 말~1950년대 초까지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점점 더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956년 일본정부는 《경제백서》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전후 처리가 이미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56년 소련과 국교를 회복함으로써 과거 교전국으로서의 원한 관계가 청산되었다. 둘째, 같은 해,(생략)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있던 관동군이 모두 일본으로 철수했고, 중국 전범재판소의 관대한

처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난 전범들도 모두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전쟁과 관련해 국외에 체류 중인 일본인이(일부 복역중인 전범을 제외한) 모두 귀국함으로써 일본은 해외에 남아 있던 문제의 소지를 확실히 제거했다. 셋째, 1965 년 일-소 수교 이후 소련이 일본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일본은 비교적 쉽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전쟁의 역사는 과거에 묻혔으며 자신들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 책임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은 형법과 정치이념상의 전쟁 책임과 이로 인한 도덕적, 정신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 국제사회에서부터 일본국내에 이르기 까지 과거 일본이 저지른 국제법을 위반한 반평화적, 반인도적 전쟁 범죄가 철저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전쟁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했던 수많은 전범들 중 상당수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또한 일본은 정치적으로도 어떠한 책임의식이나 비판의식도 없다. 지금 일본은 피해국 국민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탈아시아-유럽화’정책과 주변 약소 민족을 무시하는 ‘야마토(大和)민족’ 사상을 시정하여 모든 국가와 민족이 평등한 아시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도덕적인 부분을 보면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의식이 크게 부족하다. 도의적인 사죄를 비롯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상이나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이상적인 죄책을 분석하면 일본정계는 전쟁의 침략성에 대해 시종일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부정치가,관료,재정,경제,기업업계의 요원들은 공개적으로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대동아전쟁긍정론”을 고취하면서 “자위전쟁설”, “아세아해방설”“ABCD 포위권설”등등을 선동한다. 전쟁 책임문제에서 일본과 침략을 받은 국가간에 매우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국내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민주집단과 일본당국 및 우익집단과 완전히 다른 견해가 있다. 이는 일본의 전후 처리는 아직 원만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며 일본의 전쟁 책임문제도 전면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일본전쟁책임의 전후 처리문제는 일본정계와 전국민이 해결해야할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스

아시다시피 전후 책임은 전쟁책임의 파생이며 전쟁책임의 일부이다. 양자를 전도하면 안되며 전후 책임은 역사문제 일뿐만 아니라 현실문제이며 또한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다.

## 2. 일본 전후 책임에 대한 미국의 책임.

### 1) 동경심판의 편파와 불충분한 점

- 일본천황을 비호하였다
  - 전쟁 책임을 전부 군부에 떠밀었다.
  - 일본군의 세균전, 화학전, 종군위안부와 강제노역 등에 대한 범행을 덮어 감추었다
- 2)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일방적으로 강화하여 후환을 남겼다.
- 일본침략전쟁의 최대 수해국인 중국과 한반도국가를 배제하였다.
  - 직접적인 일본의 전쟁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 전쟁배상문제에서 일본을 위해 두둔하였다
- 3) 샌프랜시스코 조약 체결후 일본에서의 군국주의 복벽과 회귀 및 역행.
- 전범을 석방하고 투항자와 배신자를 인정하였다
  - “내향형” 추도회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
  - 군인혜택복지제도를 회복하였다
  - 문화교육계의 복고경향

### 3. 아세아 각국의 민간배상청구는 일본의 전후 책임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전쟁 이후 근 30년간 냉전이라는 큰 배경으로 아세아는 계속적으로 전쟁불꽃에 휩싸여 있었다. 중국대륙의 해방전쟁으로부터 조선,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전쟁 이르기까지 30년간 끊임없는 전쟁으로 아세아 인민들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추궁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또 할 수도 없어 객관적으로 일본을 감싸주는 미국의 책략이 이루어 지게 하였다. 냉전이 끝난 이후 아세아경제의 빠른 발전과 끊임없는 민주화 진보의 심화로 국제에서의 아세아각국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전쟁 수해자 들은 몇몇이 일본정부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었다.

더욱이 아세아의 민간배상청구를 회피할 수 없고 자극하는 제일 큰 요소는 80년대부터 일본은 신보수주의 노선을 확립하고 정치, 군사대국화로 나아 가기 시작하였다. 이 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처음으로 전후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 하는 것을 시작하였으며 일부 정치가들은 정치생명이 희생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공공연히 침략전쟁을 찬미하고 “실언대신”현상이 끊임없었다. 지식계의 극단 민족과단체들도 무대에 등장하여 연속 두 차례나 교과서를 공격하는 역행을 일으켰으며 전쟁을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편집 출판하고 남경대학살, 종군위안부, 강제노역 등 일본의 전쟁범행을 부인하였다. 이는 아세아인민들의 분노를 자아 내고 분분히 법률조치로써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게 하였다.

아세아각국의 민간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일본 정부측은 법전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세가지 이유로 아세아 각국의 수해자 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시한설, 두 번째 이유는 “국가무책임”, 세 번째는 개인의 제소권을 부인 하는 것이다.일본 당국의 이런 역행은 전쟁 책임문제를 침예화 하고 거듭되는

아세아민간배상소송에서의 패소는 또한 일본의 전후 책임문제를 부각하였다. 이 결과는 일본과 아세아 각국의 의견이 더욱 불일치 하게 되고 점차 악순환으로 변하였다.

#### 4. 일본정계와 사회 각 계층의 전후 책임에 대한 무감각의 문제점과 원인

- 1) "제2차 아세아 이탈", 아세아를 경시하고 멸시한다.
- 2) 기억의 "건망"과 역사의 도피
- 3) "민족우월주의사관"의 선동
- 4) "일억총참회"론의 부정적인 영향
- 5) 전쟁범죄를 덮어 감추고 "대동아전쟁"을 미화한다.

#### 5. 일본정계와 사회의 전후 책임

일본국민은 전후 책임에 대한 해결을 촉진하는 주체이며 일본정계는 전후 책임의 주요 당사자이며 전후 책임을 져야 하고 해결 할 관건주체이다.

- 1) 일본정계는 전쟁의 침략성을 부인한다.
- 2)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한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저지한다.
- 3) 정치에서 우경주의가 격화되고 평화헌법을 위반한다.
- 4) 여야의 우익보수세력이 서로 협동한다.

。

오늘날, 전쟁이 끝난 지도 벌써 60여 년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전후에 출생한 세대는 벌써 50%이상을 초과한다. 그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으며 당연히 전쟁에 대한 책임도 없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 책임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오늘날에 ,특히 전쟁 책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후 세대의 일본국민은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아래의 몇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5)역사의 기억을 전승하여야 한다.
- 6)전쟁 책임문제를 해결하게끔 정부를 감독하고 촉구하여야 한다.
- 7)전쟁 책임을 부인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언행을 폭로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 8) 아세아 각국 인민과 역사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이루고 일본 전후 책임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진 하여야 한다.

전쟁이 끝난 이래 일본의 민중은 반전평화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90년대 이후부터 일본 민간의 반전평화운동은 질적인 비전을 가져왔다. 즉 수동으로부터 자각으로, 전쟁 수해자 입장에서 가해국과 가해국민의 입장으로 이전 하였으며 일본과 아세아 각 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양해를 추구하고 역사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는데 있어서 일본정부가 대체 할 수 없는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의 일본은 가해국과 가해국국민입장에서 반전평화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목소리가 미미하며 주류 사회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반대로 우익보수세력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사람들이 경계하고 주목 해야 할 바이다

*Japanese war responsibility (Brief Edition)*

**Wang Xiliang**

**(China, Co-Chair, & Professor of Heilongjiang Academy of Social Science)**

**1. Raise the issue of post-war responsibility:**

A German scholar, Karl Yasepas had said that human war crime responsibility can be divided into four crime responsibilities of criminal law crime responsibility, political crime responsibility, moral crime responsibility, and metaphysical. In a process of pressing about war responsibility, not only legal responsibility of war criminal must be investigated but political, moral, and metaphysical(Inherit memory of history and maintain truth of history by recognizing and repenting war crimes exceeding oneself and by taking war responsibility)responsibility of war infringed on human society must be settled/liquidated. If not, mankind cannot learn lesson from wrong wars and regional and the world peace cannot be maintained permanently.

From 1931, Japan had implemented invasion war for 14 years in China, Asia, and Pacific Rim. In 1945, after defeat by Japan, problem of Japanese war responsibility should have been solved in late 1940s or early 1950s through post-war processes such as war criminal trial, reform of Japanese nation, liberalization of colonies, war compensation, and war restoration. However, unfortunately, Japanese war responsibility problem has not been solved in 60 years after the end of the war and as it is delayed, the problems become more acute.

In 1956,Japanese government had announced in its 《Economic White Paper 》 that Japanese post-war processes have ended. As reasons for that, first: Japan and Russia have restored diplomatic relation in 1956. This means the end of “love and hate” between Japan and warring nations. Second: in the same year, Japanese Gwandong military soldiers imprisoned in Siberia, Russia all had returned

to Japan and concurrently war criminals who were released or exempted from indictment from Chinese war criminal court also returned to Japan. Therefore, all Japanese (Except few war criminals under service in prisons) stayed in overseas due to causes of the war were all returned to Japan and Japan has no more worries in the overseas and it means that "problems remained in the war" are all solved. Third: in addition, in the same year, due to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Japan –Russia, Russia did not exercise veto right when Japan submitted admission to the UN and Japan had become a member of the UN smoothly. Japanese government had thought that they were recogniz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history problem was regarded to have been solved.

However, Japanese war responsibility problem was not completely solved. In criminal responsibility, political ideology, moral concept, and in recognition of thought, Japan had not implemented sufficient responsibility and solutions regarding the war. Ranging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domestic Japan, "anti-peace crime," "anti-humanism crime," and "war crime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which Japan had committed, were not settled completely and regarding numerous war criminals and leaders of crime did not receive criminal law punishment. Politically, through reprimand and criticism of war, dignity of damaged countries and their people must be restored. "Gettign out of Asia, Entering into Europe" policy and "Japanese psychology as a Great country" discriminating weak races and nations must be corrected and Japan shall treat each people in Asia equally. Morally, Japan lacks in recognition of introspection and rejects apology for the war and also rejects humanitarian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war damages. When analyzing metaphysical crime responsibility, Japanese political arena consistently takes unclear attitude for invasion of the war and some Japanese politicians, government officers, and key people in finance, economy, and corporations are openly beautifying invasion war and promote "affirmative theory for Large Asian War" and also agitate "theory of self-defense war," "theory of Asian liberalization," and "theory of encirclement of ABCD." In war responsibility problem,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countries invaded. Even within Japan, there are completely different opinions between progressive democratic group supporting peace and rejecting war and Japanese government and rightwing groups. This situation explains that Japan's post-war process is not yet solved smoothly and Japanese war responsibility problem is not solved entirely. Post-war process problem of Japanese war responsibility remains as an important task to be solved by all Japanese politics and people.

As you know already, post-war responsibility is a derivative of war responsibility and also is a part of war responsibility. We shall not reverse these two and post-war responsibility is not only history problem but also is actual problem and is also a very important problem for the development of peace in Asia Pacific region.

## **2. American responsibility regarding Japanese post-war responsibility**

- 1) Favoritism and insufficiency of Tokyo trial.



- Protected Japanese Emperor.
  - Put war responsibility all to the military.
  - Concealed crimes of germ warfare, chemical warfare, comfort women issue, and forced labor by Japanese military.
- 2) San Francisco treaty was signed unilaterally and had left future troubles.
- China and Korean peninsular, the two biggest damaged countries of Japanese invasion war were excluded.
  - Did not press and investigate direct Japan's war responsibility.
  - In war compensation problem, supported Japan.
- 3) Revival, recurrence, and reverse of militarism in Japan after San Francisco treaty.
- Released war criminals and recognized surrenders and traitors.
  - "Inward" Memorial service and worship at Yasukuni Shrine.
  - Restored military benefits and welfares system.
  - Restoration trend in the field of culture and education.

### **3. Civil compensation claims of each country in Asia have made Japan's post-war responsibility more conspicuous.**

For almost 30 years after the war, Asia was involved in flames of war constantly under the large background of cold war. From liberation war in Chinese continent, Korea, Vietnam, Cambodia, and up to Afghanistan war, with ceaseless wars for 30 years, Asian people almost had no opportunity to ask for Japanese war responsibility and also could not claim and therefore, it made policy of the USA to protect Japan possible objectively. With fast economic development and deepening of progress of democracy in Asia after the end of cold war, as the status of each country of Asia improv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damaged countries of the war now openly could request compensation to Japanese government.

Moreover, the biggest element that cannot avoid and agitate civil compensation claim of Asia is because Japan had established a new line of conservatism from 1980 and began to move to politically and militarily strong country. Prime Minister, Nakasone Yasuhiro had started to attend "official worship" at Yasukuni Shrine for the first time as a post-war Prime Minister and some politicians have beautified openly invasion war risking their political lives and phenomena of "cabinet members making mistakes in their statements" did not end. And extreme nationalistic groups in intellectual field had appeared on stages and had attacked textbook two times in consecutive and had edited and published history textbook beautifying the war. And they denied Japanese war crimes of Nanjing massacre, military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This had caused anger of Asian people and they happened to request compensation to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laws.

Regarding civil compensation claim by each country of Asia by laws, Japanese government have

rejected justifiable requests from damaged countries in Asia through abusing codes of laws in three reasons. As the first reason, it was time limitation for claims. Second reason was “No national responsibility” and the third reason was denying of individual claim rights. This kind of reverse movement of Japanese government had aggravated the war responsibility problem and repeated defeats in Asian civil compensation lawsuits also had highlighted Japan’s post-war responsibility problem. As the results, opinions of Japan and each country of Asia had become more different and gradually had changed into a vicious cycle.

#### **4. Problems and causes of insensibility of Japanese political arena and various levels of Japanese society regarding post-war responsibility.**

- 1) ”The second getting out of Asia”, Japan again looks down and despise Asia.
- 2) “Oblivion” of memory and evasion of history.
- 3) “Agitation of “A historical view of Racial superiority.”
- 4) “Negative impacts on the theory of “total regrets of 100 million.”
- 5) “ Conceal the war crime and beautify “Large Asian War.”

#### **5. Post-war responsibility of Japanese political arena and society**

Japanese people are the main subject responsible to accelerate solution of post-war responsibility, Japanese politics are the main part of post-war responsibility and is the key subject who shall be responsible for post-war responsibility and to solve post-war responsibility.

- 1) Japanese politics deny invasion of the war.
- 2) International society prevents pressing and investigating Japanese war responsibility.
- 3) Political rightwing becomes more violent and violates peace constitution.
- 4) Rightwing conservative forces of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cooperates each other.

Now, 6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end of the war. According to the statistic, generation born in post-war period in Japanese already exceeds over 50%. Naturally, as they did not experience the war and naturally,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the war. However, in today when Japanese war responsibility problem is not sufficiently solved, in particular, post-war generation Japanese people must politically be responsible for solving the war responsibility. They have to know at least the following several points.

- 5) They have to inherit memory of history.
- 6) They must supervise and promote the government in solving the war responsibility problem.
- 7) They must reveal and criticize words and actions denying the war responsibility and beautifying the invasion war.
- 8) They must promote fundamental solution of Japanese post-war responsibility sharing the

common recognition about people of each country of Asia as well as the history.

Since the end of the war, general public of Japan did not stop anti-war peace movement. In particular, after 1990s, anti-war peace movement of Japanese civilians has brought up qualitative vision. That is, they have moved from passive position to self-recognition, from damaged position of the war to position as infringing country and people of infringing country and have encouraged mutual understanding and concession between Japan and each country of Asia and in sharing common recognition about history, they have contributed which Japanese government cannot replace. However, what is regretful is that in the current Japanese society, voices of civilian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mselves in position of infringing country and people of infringing country for anti-war peace movement are very minimal and therefore, they don't affect a big impact on the main stream society. On the contrary, rightwing conservative force is now in a trend of expansion and this is what people have to be careful and shall pay attention.

## 日本战后责任论（简本）

Wang Xiliang

(China, Co-Chair, & Professor of Heilongjiang Academy of Social Science)

### 一、 战后责任的提出

德国学者卡尔·雅西帕斯（译音）认为，人类的战争罪责应划分为刑法罪责、政治罪责、道德罪责和形而上等四个方面的罪责。所以，在追究战争责任的过程中，不仅要追究战争罪犯的法律责任，还必须清算由于战争给人类社会带来的政治、道德和形而上（超越自我、认识和反省战争罪恶、承担战争责任、继承历史记忆、维护历史的真实）的责任，否则，人类则不可能从错误的战争中吸取教训，更难以维持地域和整个世界的持久和平。

从 1931 年开始，日本对中国、亚洲及太平洋地域发动了长达 14 年之久的侵略战争。按说，在 1945 年日本战败投降以后，经过战犯审判、日本国家改造、殖民地解放、战争赔偿、战后恢复等一系列战后处理，日本的战争责任问题理应在 40 年代末或 50 年代初得以解决。然而遗憾的是，尽管那场战争已经结束 60 年之久，日本的战争责任问题却一直拖延至今，甚至越发尖锐化。

1956 年，日本政府在《经济白皮书》中宣布日本已经结束了“战后”：第一、1956 年日苏之间正式恢复了邦交，表明日本同交战国之间的“恩怨”已经结束；第二，也是在这一年，羁押在苏联西伯利亚的原关东军最后一批士兵回国，经中国战犯审判机关宽大释放或不予起诉的一批战犯也同时踏上归途，这样，由于战争原因滞留在海外的日本人（除个别服刑战犯外）全部回国，日本在海外不再有什么牵挂，意味着战争“遗留问题”也全面解决；第三、还是在这一年，由于日苏建交，苏联在审议日本加入联合国时不再行使否决权，日本顺利加

入联合国，日本当局遂自以为被国际社会所接纳，历史问题成为了过去。

然而，日本的战争责任问题并未能全面解决。无论是在刑法责任上、政治理念上、道德观念上，以及思想认识上，日本都未能充分承担和解决战争责任问题。从国际社会到日本国内，对日本当年犯下的“反和平罪”、“反人道罪”和“违反国际法的战争犯罪”，并没有予以彻底地清算，许多战争罪犯、甚至首要分子没有得到刑法的惩处；政治上没有谴责和批判战争，恢复被害国家和人民的尊严，纠正“脱亚入欧”、歧视弱小民族的“大和民族”心理，平等对待亚洲各民族；道德上缺乏反省意识，拒不道歉谢罪，拒绝人道主义的赔偿和战争被害的补偿；从形而上的罪责分析，日本政界对战争的侵略性质始终持暧昧态度，日本的一些政治家、官僚、财、经、企各界要员甚至公开为侵略战争涂脂抹粉，鼓吹“大东亚战争肯定论”，宣扬“自卫战争说”，“亚洲解放说”以及“ABCD 包围圈说”等等。所以，围绕着战争责任问题，日本同被侵略国家之间产生了悬殊极大的反差。在日本国内，坚持和平反战运动的民主进步势力同日本官方及右翼势力之间也产生了截然不同的分歧。这说明，日本的战后处理并没有画上“圆满”的句号，日本的战争责任问题也没有“全面”得以解决。这样，关联日本战争责任的战后责任问题也就成为摆在日本政界和所有国民面前的重大课题。

可见，战后责任是战争责任的延伸，战后责任源于战争责任，两者不能倒置。战后责任不仅仅是历史问题，更是现实问题，又是关联亚太地区和平发展的重大问题。

## 二、 日本战后责任的美国责任

### 1) 东京审判的偏颇和缺憾

第一、庇护了昭和天皇。

第二、把战争责任全部推给军部。

第三、掩盖了日军实施细菌战、化学战，强制慰安妇和劳工等战争罪行。

### 2) 旧金山条约片面讲和，放虎归山

第一、把侵略战争的最大受害国中国和朝鲜半岛国家排斥在外。

第二、未直接追究日本的战争责任。

第三、在战争赔偿问题上为日本开脱和护驾。

### 3) 旧金山条约签字后，日本很快出现复辟、倒退和回潮。

第一、释放战犯，招降纳叛。

第二、“内向型”追悼会及参拜靖国神社。

第三、军人恩给制度的复活。

第四、文化教育界的复古倾向。

### 三、亚洲各国的民间索赔，凸显出日本的战后责任

战后近30年的时间里，在冷战的大背景下，亚洲始终被战火弥漫，从中国大陆的解放战争，到朝鲜、越南、柬埔寨、阿富汗战争，战事连绵30年不息，亚洲人民几乎没有机会和可能去追究日本的战争责任问题，客观上使美国庇护日本的策略得逞。冷战结束后，随着亚洲经济的长足发展，民主进步的不断深入，亚洲各国国际地位的空前提高，战争受害者可以挺起腰杆向日本政府讨还公道。

更不容回避和刺激亚洲民间索赔的一大因素是：从80年代起，日本确立了新保守主义的路线，开始向政治、军事大国化的目标迈进。为此，中曾根康弘首开战后总理“公式参拜”靖国神社之先河，一些政治家不惜牺牲政治生命公然为侵略战争大唱赞歌，“失言大臣”现象层出不穷。知识界极端民族派团体也登上前台，连续两次掀起攻击教科书的逆流，编写出版美化战争的历史教科书，否认南京大屠杀、从军慰安妇、强制劳工等日本的战争罪行。因而激起了亚洲人民的愤慨，纷纷拿起法律武器，向日本政府讨还公道。

面对亚洲各国民间的索赔诉讼，日本官方采取强词夺理、濫用法典的手段，挥舞着三条大棒，将亚洲各国受害人的正义要求拒之门外。一是时限说；二是“国家无答责”；三是否认个人申诉权。日本当局的倒行逆施激发了战争责任问题的尖锐化，亚洲民间索赔诉讼的屡遭败诉又使日本的战后责任问题浮出水面。其结果是加深了日本同亚洲各国的分歧，并逐渐演成恶性循环。

### 四、日本政界和社会各界战后责任意识淡漠之症结及原因

- 1) “第二次脱亚”，歧视和蔑视亚洲。
- 2) 记忆的“健忘”和历史的逃避。
- 3) “民族净化史观”的推波助澜。
- 4) “一亿总忏悔”论的负面影响。
- 5) 掩盖战争罪行，为“大东亚战争”涂脂抹粉。

### 五、日本政界与社会的战后责任

日本国民是促进解决战后责任的主体，日本政界是酿成战后责任的主要“肇事者”，也是承担和解决战后责任的关键所在。

- 1) 日本政界拒不承认战争的侵略性质。
- 2) 抵制国际社会对日本战争责任的追究。
- 3) 政治右倾化的加剧，背离和平宪法越走越远。
- 4) 朝野上下右翼保守势力的互动。

今天，那场战争已经过去60多年，据统计，在日本战后出生的一代已经超过50%以上。自然，他们没有经历过战争，当然不负有战争责任。但是，在日本战争责任问题没有得到充分解决的今天，尤其是在解决战后责任问题上，战后一代的日本国民理应负起政治责任。至少应该有以下几点：

- 一是继承历史的记忆。
- 二是监督和敦促政府解决战后责任问题。
- 三是揭露和批判否认战争责任、美化侵略战争的言行。
- 四是同亚洲各国人民达成历史共识，促进日本战后责任的根本解决。

战后以来，日本民众从来没有停息反战和平运动，特别是进入90年代以后，日本民间的反战和平运动发生了质的飞跃，即从不自觉到自觉，从战争被害者的立场转移到加害国和加害国民的立场上，为促进日本同亚洲各国的相互理解和谅解，促进历史共识做出了日本政府不可取代的贡献。然而，不能不遗憾地说，当前的日本，站在加害国和加害国民的立场投身反战和平运动的民间团体力量还比较薄弱，他们的声音还难以影响社会的主流。相反，右翼保守势力却有扩张之势，这是值得人们警惕和关注的。

## 日本戦争責任論(略本)

Wang Xiliang

(China, Co-Chair, & Professor of Heilongjiang Academy of Social Science)

### 1. 戦後責任に対する申し立て：

ドイツの学者カール・ヤシヨファース(音訳)は人類の戦争罪責は刑法罪責、政治罪責、道徳罪責と形而上などの四つの方面の罪責で分けることができると話した。戦争の責任を追窮する過程で戦争犯罪者の法律的責任を追窮しなければならない上に戦争が人間社会に及ぼした政治、道徳と形而上(自我を超えて戦争罪悪を認識し、反省して戦争責任を負うことにより歴史の記憶を受け継ぎ、歴史の真実を守る)責任も清算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し、そうでなければ人類は誤った戦争 戦争で教訓を受け入れることが出来なくて地域と全世界の永続的な平和維持は最もできない。

1931年から日本は中国、アジア及び太平洋流域で14年間侵略戦争を進行してきた。1945年日本は敗戦以後の戦犯裁判、日本国家改造、植民地解放、戦争賠償、戦争回復などの一連の戦後処理をかけ、日本の責任問題は40年代末、あるいは50年代初に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かし、残念なのは日本の戦争責任問題は戦争結束後60年余経っても解決出来なかったし、ますます尖鋭になっている。

1956年日本政府は《経済白書》で日本の戦後処理は終わったと宣布した。その理由で一番目：1956年日本とロシアは国交を回復した。これは日本と交戦国との“恩讐”は仕上げになった事を意味する。二番目：同年、旧ソ連のシベリアに拘禁された残りの日本関東軍軍人たちが帰国し、それと同時に中国戦犯審判所の寛大で釈放になったとか、起訴が免除された戦犯たちも帰国するようになった。かくして戦争の原因で海外に滞留していた全ての日本人(一部服役中の戦犯を除外)が帰国することで、日本は海外にはもう悩みがなくなり、“戦



争に残された問題”を全面解決したということの意味する。三番目：また、同年に日本-旧ソ連の修交で旧ソ連は日本がUNに加入の申し込みを審査するとき拒否権を行わず、順調にUNに加入することで日本政府は自ら国際社会に認められたと思い、歴史の問題は過去のことになった。

しかし日本の戦争責任問題は全面的に解決されたのではない。刑事責任や政治的理念及び道徳観念、そして思想認識において日本は戦争に対する責任と解決策を十分履行しなかった。国際社会から日本国内に至るまで日本がやった“反平和的”“反人道罪”と“国際法を違反した戦争犯罪”に対し、徹底的な清算を行わず、あまたある戦争犯罪者と首謀に対しても法律的処罰を行わなかった。政治的に戦争に対する叱責と批判を通じて受害国家と国民たちの尊厳を回復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亜細亜離脱、ヨーロッパ加入”政策、弱小民族を差別する“大日本民族の心理”を改め、アジア各民族を平等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道徳的には反省認識が欠乏されていて、戦争に対するお詫びを拒否しているし、人道注意的賠償と戦争被害に対する賠償を断っている。形而上的な罪責を分析すれば、日本政界は戦争の侵略性に対して始終曖昧な態度を取っているし、日本の一部政治家、官僚、財政、経済、企業業界の要員たちは公開的に侵略戦争を美化して“大東亜戦争肯定論”を鼓吹しながら“自衛戦争説”、“アジア解放説”“ABCD包囲圏説”などを先導する。戦争責任問題で日本と侵略を受けた国家間に非常に大きい格差を現わしている。日本国内でも、平和を維持して戦争を反対する進歩的な民主集団と日本政府及び右翼集団と全く異なる見解がある。これは日本の戦後処理はまだ円満に解決されたのではなくて日本の戦争責任問題も全面的に解決された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の説明する。日本戦争責任の戦後処理問題は日本政界と全国民が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重大な課題として残っている。

ご存知のように戦後責任は戦争責任の派生で戦争責任の一部である。この二つを転倒してはいけなく、戦後責任は歴史的な問題だけではなく現実問題であり、また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発展に関する重大な問題である。

## 2. 日本の戦後責任に対するアメリカの責任.

### 1) 東京審判の偏頗と不十分な点。

- (1) 日本天皇を庇護した
- (2) 戦争責任を全部軍部に押しつけた。
- (3) 日本軍の細菌戦、化学戦、従軍慰安婦と強制労役などに対する犯行を覆い隠した。

### 2) センプランシスコ条約は一方的に講和して後患を残した。

- (1) 日本侵略戦争の最大受害国である中国と韓半島国家を排除した。
- (2) 直接的な日本の戦争責任を追窮しなかった。
- (3) 戦争賠償問題で日本をかばった。

- 3) センプランシスコ条約締結の後日本でのミリタリズム復壁と回帰及び逆行。
  - (1) 戦犯を釈放して投降者と裏切者を認めた。
  - (2) “内向型” 追悼会と靖国神社を参拜する。
  - (3) 軍人福祉制度を回復した。
  - (4) 文化教育界の復古傾向

## 2. アジア各国の民間賠償請求は日本の戦後責任を著しくした。

戦争後、およそ30年間冷戦という背景で、アジアは始終戦争の炎に包まれていた。中国大陸の解放戦争から韓国、ベトナム、カンボジア、アフカン戦争にのぼるまで 30年間絶え間ない戦争でアジアの人たちは日本の戦争責任を追窮する機会がほとんどなかったし、また、できなくて客観的に日本をかばってやるアメリカの策略が成り立つようにした。冷戦が終わった後、アジア経済の早い発展と絶え間ない民主化進歩の深化で国際でのアジア各国の地位が向上するによって戦争受害者たちははれて日本政府の賠償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た。

なおかつアジアの民間賠償請求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刺激する一番大きな要素は 80年代から日本は新保守主義の路線を確立して政治、軍事大国化に進み始めた。これに中曽根康弘総理が初めて戦後の総理が靖国神社を“公式参拜”することを始めたと共に一部政治家たちは政治生命が犠牲になることも惜しがらなく、露骨に侵略戦争を賛美して“失言大臣”現象が絶えなかった。知識系の極端民族派団体たちも舞台に登場して連続に二回にも教科書を攻撃する逆行を起こして、戦争を美化した歴史教科書を編集出版して南京大虐殺、従軍慰安婦、強制労役など日本の戦争犯行を否認した。これはアジア国民の怒りを催して、法律的な措置として日本政府に対する賠償請求をするようにした。

アジア各国の民間賠償請求訴訟に対して日本政府側は法典を濫用する手段に、とんでもない三つの理由でアジア各国の受害者たちの正当な要求を拒否した。一番の理由は時限説、二番目の理由は“国家無責任”、三番目は個人の提訴圏を否認することであった。日本政府のこんな逆行は戦争責任問題を尖鋭化し、繰り返されるアジア民間賠償訴訟での敗訴は、また日本の戦後責任問題を著しく表わした。この結果、日本とアジア各国の意見はもっと一致しなくなり、悪循環となった。

### 4. 日本政界と社会各階層の戦後責任に対する無感覚の問題点と原因

- 1) ” 第2次アジア離脱”、アジアを軽視して見下す。
- 2) 記憶の“健忘”と歴史の逃避
- 3) “民族優越注意士官”の煽動
- 4) “一億總懺悔”論の否定的な影響
- 5) 戦争犯行を覆い隠して“大東亜戦争”を美化する。

## 5. 日本政界と社会の戦後責任

日本国民は戦後責任に対する解決を促進する主体であり、日本政界は戦後責任の主要当事者であり、戦後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し、解決する関件主体である。

- 1) 日本政界は戦争の侵略性を否認する。
- 2) 国際社会が日本に対する戦争責任を追究することを阻止する。
- 3) 政治で右傾注意が激化され、平和憲法を違反する。
- 4) 与・野党の右翼補修勢力がお互いに協力する。

今日戦争が終わったのももう60年余りになる。統計によると日本の戦後に出生した世代はもう50%以上を超得る。彼らは戦争を経験しなかったし、当然戦争に対する責任もない。しかし日本の戦争責任問題が十分に解決され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今、特に戦争責任を解決するのにあつて戦後世代の日本国民は必ず政治的な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少なくとも下の項目には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歴史の記憶を伝え、受け継がなければならない。
- 6) 戦争責任問題を解決するため、政府の監督と促さなければならない。
- 7) 戦争責任を否認し、侵略戦争を美化する言行を暴露し、批判しなければならない。
- 8) アジア各国の国民と歴史に対する共通的な認識を成し、日本戦後責任の根本的な解決を促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

戦争が終わった以来、日本の民衆は反戦平和運動を止めなかつた。特に 90年代以後から日本民間の反戦平和運動は質的なビジョンを持って来た。すなわち受動から自覚に、戦争受害者立場で加害国と加害国国民の立場に移転したし、日本とアジア各国家間の相互理解と了解を促して歴史に対する共通的な認識を持つのに対し、日本政府が取り替えられない貢献をした。しかし残念なことは、今の日本は加害国と加害国国民立場で反戦平和運動をする民間団体の声が少なく主類社会に大きい影響が及ぼせない。反対に右翼保守勢力は拡張されている成り行きで、これは人々が警戒し、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である。

## 영토 및 영해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역할

###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존 W 맥도널드

(미국, 멀티트랙 외교연구소 대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이고 중요한 회의에 저를 초청해 주신 조직위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국가를 처음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한국전쟁에 의한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1967년도 입니다. 저의 두 번째 방문은 1997년 이었는데 그 때 저는 장애인 문제에 관련된 국가적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남한과 북한의 장애인들의 국민 대 국민 교류를 두 국가간의 신뢰구축 방안으로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금번을 포함한 세 번의 방문 동안 위대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지난 50년간 이룩한 엄청난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역사를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간다면 전 세계는 공포와 무력으로 지배하는 10개의 거대한 국가들에 의해 통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 세기 동안 이러한 제국들은 사라졌고 1991년에는 그 10개중 마지막 제국이었던 소련제국이 마침내 붕괴하였습니다.

1945년 작성된 UN헌장은 각 국가가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국가주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헌장의 7장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서 진행되는 40여 개의 분쟁은 모두 국가영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분쟁조정의 공백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NGO 단체들에 의한 시민외교 또는 비 공식적 관계 (트랙 2)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NGO 단체들은 정부기관 (공식적 외교관계: 트랙 1)이 추진해야 하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빠른 인터넷 교류에 힘입어 NGO 단체들은 인류전반에 접근이 가능해졌고 공동의 권익을 위하여 지방, 지역,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하는 효과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인의 멀티트랙 외교를 위한 단체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가 워싱턴 DC 에서 탄생하게 된 것 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향한 시스템 접근방식을 채용하며 정부가 실행하기 어려운 평화를 사람들이 함께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멀티 트랙 외교라고 부르며 이것은 분쟁을 줄이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접근방식에 속하는 사회의 모든 계층을 대변합니다 (다이어그램을 참조할 것).

우리는 아프리카, 남 아시아, 중동 그리고 중앙 유럽 등 세계전역의 약18가지의 분쟁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만에서도 일해왔는데 본인은 10년 전 이곳에서 많은 석사와 박사 학생들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중국이 일본에게 대만을 영원히 양도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대만 국민들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매우 놀랐습니다. 본인은 1998년 타이페이의 한 회의에서 만약 그들이 독립을 원한다면 중국역사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글을 쓸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5년 안에 그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멀티 트랙 외교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여 분쟁을 줄이고 좀더 평화로운 상태를 만드는데 있어서 NGO가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멀티 트랙 외교는 특히 영토와 영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북동 아시아 지역의 지역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분쟁지역의 모든 해당 국가로부터 분쟁 해결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빙하는 것은 분쟁 감소를 위해 설계된 상호 합의 단계의 개발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NGO단체에 의해 달성된 비공식적 외교관계 (트랙 2)가 결국 정부주관의 공식적 외교관계 (트랙 1)를 이끌어 내어 최종 합의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세계2차 대전의 일본 참전병사들이 보여준 용서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단된 키프로스, 분단된 카슈미르, 분단된 편자브에 대한 이야기이며 혁신, 기술, 그리고 인내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입니다.

권고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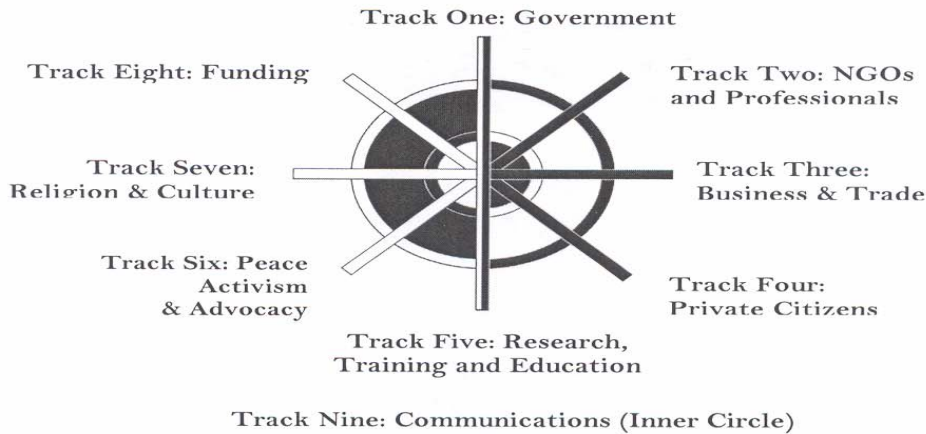
본인은 다음과 같은 본 회의를 위한 3가지의 권고안을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1. **대화** - 본인은 어떻게 워싱턴 DC 에 위치한 우리 단체가 3 가지의 지속적인 대화 -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화- 를 만들어 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2. **친구간의 중재** -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교사들에게 분쟁 해결 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인들 없이 그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3. **분쟁해결훈련** - 본인은 이곳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서 분쟁 해결 및 평화구축 분야에서 더 많은 석사와 박사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결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 사회의 어떤 계층에서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함께 앉아 얼굴을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The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IMTD's Logo illustrates the systemic nature of the nine tracks in the multi-track systems approach to peace.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1901 North Fort Myer Dr. Suite 405 Arlington, VA 22209 USA  
 Tel 703-528-3863 fax 703-528-5776 [www.imtd.org](http://www.imtd.org) [imtd@imtd.org](mailto:imtd@imtd.org)

**Opening Symposium – Panel 2 \_ English**

***Role of Civil Society for Consideration of Territorial Land and Water***

***“Making the Impossible Possible”***

**John W. McDonald**

**(U.S.A, Ambassador, Co-Chair, & Co-founder of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It is an honor and privilege to be with you today. I thank the Organizers to invite me to participate in this historic and important conference.

My first visit to this beautiful country was in 1967 when South Korea was still struggling to overcome the destruction caused by the Korean War. My second visit was in 1997 when I spoke at a national conference on disability issues and recommended that there be a People-to-People exchange of the Disabled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s a beginning of trust-building measures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is third visit I have been enormously impressed with the tremendous progress that South Korea, a great nation, has made over the past 50 years.

If you go back over hundred years in history you will realize that the world was dominated by ten enormous Empires who ruled by fear and by force. They kept the lid on conflicts within their Empires. Over the decades the Empires disappeared and in 1991 the last of the ten Empires, the Soviet Empire, collaps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ritten in 1945 is based on National Sovereignty which means that each nation controls who enters and leaves its State. Chapter VII of the Charter only takes effect when one Nation State invades the other. But today the 40 conflicts in the world are all within national boundaries. We as a world are not designed to cope with those intra-state conflicts. This creates a vacuum and is the reason wh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lay tod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Citizen diplomacy or Track Two diplomacy. NGOs take on issues that governments (Track One diplomacy) should be pursuing and are reluctant to do so. Thanks to the fast Internet communication, NGOs can reach across the whole spectrum of humanity and have become an

effective force to work for the common good, locally, regionally and globally.

This is how my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IMTD) was born in 1992 in Washington, D.C. We take a systems approach to peace and are convinced that people must work together to build the peace that governments find so difficult to carry out. We call this Multi-Track Diplomacy, representing all levels of society in a systems-approach to reducing conflicts and building peace (see diagram).

We have worked with people in some 18 conflicts around the world in Africa, South Asia, Middle East and Central Europe. We have also worked in Taiwan where I learned ten years ago that many Master's and PhD students had never heard of the 1895 Treaty of Shimonosaki in which China gave Formosa to Japan, in perpetuity. I was astonished to learn that there was no History of the Taiwanese People. I recommended to a conference in Taipei in 1998 that if they wanted independence they had to teach and write about their own history and not only Chinese history. As those who are here at this conference know, within five years they had done so.

I want to talk about the powerful role that an NGO can play in helping to reduce conflict and create a more peaceful existence through using multi-track diplomacy as a tool. Multi-track diplomacy is ideally suited to create regional trust-building measures in North East Asia, especially to reduce tensions over territorial land and water disputes. Bringing professionals skilled in conflict resolution together from all parties in the conflict will lead over time to the development of mutually agreed steps designed to reduce the conflict. Ultimately the goal is to engage Track One, the governments, in the results achieved by Track Two, the NGOs, and let Track One finalize the agreements.

For example, with regard to my own work, I will talk about an act of forgiveness by WW II Japanese veterans; about divided Cyprus, divided Kashmir, and divided Punjab and show how through innovation, skill, and patience, over time, change can take place.

### **Recommendations:**

I have three recommendations for this conference to consider.

1. **Dialogue** – I will explain how we at IMTD in Washington, D.C. have created three continuous Dialogues: between Japan-Korea, Japan-China, and China-Taiwan.
2. **Peer Mediation** – this is focused on young people and involves the training of teachers in conflict resolution skills which they teach their students so the students will resolve their conflicts among themselves, with no adult present.
3. **Conflict Resolution training** - I urge the creation of more Master's and Ph.D. programs in all countries represented here, in the field of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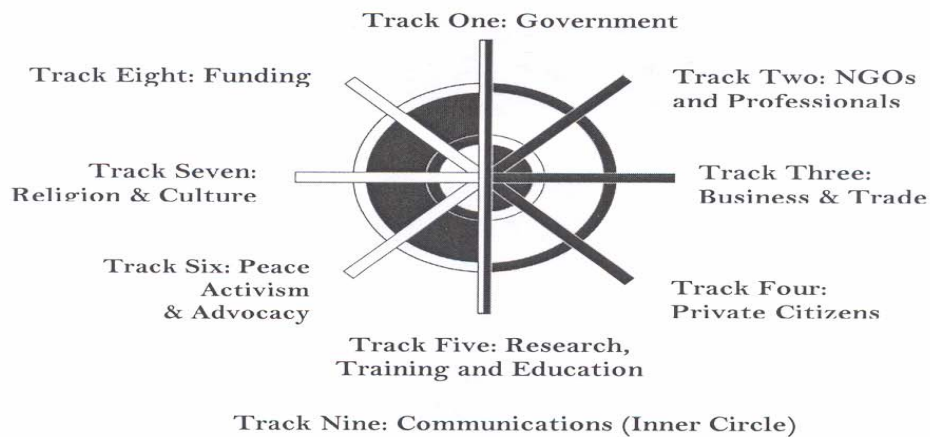


building.

**Conclusion: Making the Impossible Possible - The only way to solve a conflict, at any level of society, is to sit down, face to face, and talk about it.**

### The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IMTD's Logo illustrates the systemic nature of the nine tracks in the multi-track systems approach to peace.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1901 North Fort Myer Dr. Suite 405 Arlington, VA 22209 USA  
Tel 703-528-3863 fax 703-528-5776 [www.imtd.org](http://www.imtd.org) [imtd@imtd.org](mailto:imtd@imtd.org)

*与领土及领海相关的市民社会的影响*

*“将不能变为可能”*

**John W. McDonald**

**(U.S.A, Ambassador, Co-Chair, & Co-founder of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今天很荣幸与在座的诸位见面。同时感谢邀请我出席今天这个具有着重大历史意义的会议的各位组织委员。

记得我第一次访问韩国是在韩国战争后---1967年，那时韩国上下共同致力于战后的修建事业。第二次访问韩国是于1997年，在有关残疾人问题的国际会议上，曾经提出了在南韩和北朝残疾人之间进行人与人的交流，形成国家间的互信格局的构想。包括本次在内的第三次韩国之行，让我亲身目睹了大韩民国在过去50年间取得的伟大的发展。

如果将历史追逆到几百年前的话，就会发现，那时，整个世界是被以恐怖及武力支配的10大国所控制着。数世纪之后，那样的帝国依次消失，直到1991年，最后一个帝国—苏联帝国终究瓦解！

1945年制定的联合国宪章是立足于各国掌控本国命运的国家主权的基础上建立起来的。本宪章的第7项只有当一国侵略他国时才有效。但是，当今世界上存在的40余个争端问题都是出于对国家领土的纷争。为拟补这一空白，也正是NGO组织强调的市民外交或非正式关系（轨2）在国际社会中日益发挥更重要影响的原因。NGO组织对政府迟缓促进的各方案有着浓厚的兴趣。通过互联网的交流，NGO组织可以广泛地接近大众，成为促进地方，地区，乃至世界范围内共同

权益的原动力。

因此，为了本人的多轨外交，团体(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在华盛顿诞生。我们采取接近和平方式体系，坚信市民应与政府一起构建实行困难的和平。我们称之为多轨外交，是属于为解决纷争增进和平的一种系统接触方式，可以适用于社会所有阶层。（参照立体图）

我们曾经参与解决非洲，南亚，中东，及中欧等世界领域的约18项纷争问题。同时，我们在台湾也展开过工作，并了解到10年前这里的很多硕士及博士学生都不知道1895年签署的马关条约中，清政府将台湾永久性割让给日本的事实。本人也为台湾市民没有历史而感到震惊。1998年在台北的一个学会中，我曾经提议说，如果他们愿意独立的话，不仅仅对于介绍中国的历史，同时也对可以介绍台湾自身的历史。那么，参加这次会议的朋友就会发现，在5年之内他们就会付诸行动。

我认为，要以多轨外交为工具减少纷争，建设较为和平的国际状态，NGO将起到极其重要的作用。多轨外交对于缓解领土领海的紧张，促进东北亚地区的地区互信能起到极其深远的影响。邀请纷争地区的所有国家派出专家使者共同商讨问题有助于减少纷争，进入相互协商阶段。积极的目标是依据NGO组织达成的非正式外交关系（轨2），引导政府部门的正式外交关系（轨1），最终促进协议的达成。

比如，与本人的业务有关世界第2次大战日本参战士兵们请求宽恕的行为为例来说明。这就是对分裂的塞浦路斯，分裂的克什米尔，分裂的旁遮普的阐述，以及经过革新，技术，及忍耐，随着时间的推移，就会说明所发生的变化。

本人将阐述如下为本会议考虑到的3方面的提案。

1. **对话**- 本人将对位于华盛顿的我们的组织怎样维持 3 方面对话-日本和韩国，日本和中国，中国和台湾之间的对话-进行说明
2. **朋友间的仲裁**- 这是针对年轻人的焦点。对教官们进行解决纷争的训练，之后，教官们在没有成年人帮助的情况下，引导学生自己解决问题的方法。
3. **解决纷争的训练**- 本人提倡建立在这里参与本会的所有国家在解决纷争，构建和平的领域里有更多的硕士及博士参与的体系。 \_

**结论：** 将不可能变为可能- 无论是社会的任何一个阶层，解决纷争的唯一办法就是，面对面地坐下来，就事谈论。

## 領土及び領海と関連した市民社会の役割

“不可能なことを可能に”

**John W. McDonald**

**(U.S.A, Ambassador, Co-Chair, & Co-founder of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本日みなさんとご一緒することができて光栄です。このような歴史的であり重要な会議に私を招待して下さった組織委員に感謝を申し上げます。

私がこの美しい国家を初めて訪問したのは、大韓民国が依然として朝鮮戦争による破壊を克服するために努力していた 1967 年です。私の二回目の訪問は、1997 年でしたが、その時私は身体障害者の問題に関連した国家的な会議で演説をして、韓国と北朝鮮の障害者たちが、人と人との交流を両国間の信頼構築の方案として勧めました。そして、今回を含めて三度の訪問の間、偉大な国家である大韓民国が過去 50 年間で成し遂げた偉大なる発展に深く感銘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もし、皆さんが歴史を数百年遡ると全世界は恐怖と武力で支配する 10 の巨大な国家によって、統治されたのが分かることができます。数世紀の間、このような帝国はなくなり、1991 年には、その 10 ヶ国の中で最後の帝国であったソ連帝国がついに崩壊しました。

1945 年に作成された UN 憲章は、各国が自らの運命を左右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国家主権に根拠しています。この憲章の 7 章は、ある国家が他の国家を侵略した時にだけ有効です。しかし現在の世界で進行される 40 あまりの紛争は、全て自国の領土の中で起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現象は、(政治) 空白を作ってしまう、直ちに NGO 団体などの市民外交または非公式的な関係 (トラック 2) が占める役割の重要性が日々増加している訳です。NGO 団体は政府機関 (公式的外交関係: トラック 1) が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が、躊躇っている事案に対して関心を持ちます。速い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交流の力にあずかって、NGO 団体は、人類の全般への接近が可能となり、共同の権益のために地方、地域、そして世界的に働く効果的な原動力になりました。

このようにして私のマルチトラック外交のための団体 (Institute for Multi-Track Diplomacy) がワシントン DC で誕生したのです。私たちは平和に向けた システムの接近方式

を採用して、政府が実行し難い平和を人々が一緒になって築いて行くべきだと信じています。私たちは、これをマルチトラック外交と呼び、これは紛争を減らして平和を構築するためのシステムの接近方式に属する社会のすべての階層を代弁します（ダイアグラムを参照すること）。

私たちはアフリカ、南アジア、中東そして中央ヨーロッパなど、世界全域の約18ヶ所の紛争地域で人々と共に働いてきました。私たちはまた、台湾でも働いてきましたが、私は10年前、こちらで多くの修士と博士の学生達が、1895年シモノセキ（下関）条約で、中国が日本に台湾を永久に譲渡したことを分らない事実を知りました。また私は台湾国民の歴史が存在しないことを知り、非常に驚きました。私は、1998年の台北でのある会議で、もし彼らが独立を願うなら、中国の歴史だけではなく、彼ら自らの歴史について教えて文を書くことを勧めました。この会議に出席した皆さんはお分かりになるでしょうが、彼らは5年の間にそれを実行に移しました。

私は、マルチトラック外交を一つの道具として使い紛争を減らし、もっと平和な状態を作るのに、NGOが寄与することができる非常に力強い役割について論じたいとおもいます。マルチトラック外交は、特に領土と領海の緊張を解消するための北東アジア地域の地域的な信頼の構築の方案としてとても適しています。紛争地域のすべての該当する国家から、紛争解決分野の専門家たちを招待することは、紛争の減少のために設計された相互合意段階の開発を導き出すはずでです。究極的な目的は、NGO団体によって達成された非公式な外交関係（トラック2）が、結局政府主管の公式的な外交関係（トラック1）を導き出して、最終合意をするようにさせることです。

例えば、私の業務と係わって、世界2次大戦中の日本の兵士たちが見せた容赦の行動について話します。これは、分断されたキプロス、カシミール、パンジャーブについての話であり、革新、技術、そして我慢を通しての時間がすぎるによって、どのような変化が起きるのかを見せてくれる話です。

勧告項目：

私は、本会議のために次のような三つの勧告案を斟酌してくれるように提案します。

1. **対話** - 私は、ワシントン DC にある私たちの団体が、どのようにして三つの持続的な対話 - 日本と韓国、日本と中国、そして中国と台湾の間の対話を作り出したのか説明しようと思います。

2. **友達の中の仲裁** - これは若者達に焦点を合わせて、教師らに紛争の解決技術を訓練させることで、教師らが学生達に、大人達がいなくても彼ら自ら紛争を解決して行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教えるのです。

3. **紛争の解決訓練** - 私はこちらに参加したすべての国家で、紛争解決及び平和の構築の分野でより多くの修士と博士の育成プログラムを作ることを促します。

**結論**：不可能を可能なことにする一社会のどんな階層であっても、紛争を解決するための唯一の方法は、共に座って顔を向き合わせ、問題に対して話しあうことです。

## 제국주의, 민족주의, 팽창주의 극복을 통한 역사화해

정현백

(한국,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물결이 몰아치고 컴퓨터와 이동통신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니, 과거를 분석해 보아야 하는 역사학의 과제는 미래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역사가들은 보다 성찰적인 눈으로 스스로가 서술해온 과거를 돌아볼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역사학은 그간의 역사서술, 특히 국가 중심의 역사서술이 근대역사학의 산물이지만, 역사적 진실을 재구성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제 역사학, 나아가 역사교육은 냉정하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성찰적 자세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자면, 우리는 그 사이 얼마나 민족주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았고, ‘강대국에 의한 피해자’를 자임하면서도 우리 내부에 스스로 제국주의의 눈(imperial eyes)을 지니고 있었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얼마나 강한 성장중심주의가 착근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지난 20 여 년 동안 진행된 한/중/일 사이의 역사갈등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역사학이 대중 속에서 왜곡된 정치화와 갈등의 첨예화를 약화시키지도 못하였고, 화해와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걸음을 제대로 내디디지도 못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발표를 통해 내 안의 제국주의, 팽창주의, 민족주의를 읽어내고, 나아가 역사화해를 모색하는 소박한 제안을 내놓고자 한다.

### 내 안의 제국주의 (Imperialism in myself), 내 안의 팽창주의

우리 안의 제국주의는 먼저 동아시아 3 국의 역사 속에 내재화한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일 것이다. 최근 역사가들 사이에서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는 유럽과 북미의 역사발전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비서구세계를 주변화해온 그간의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유럽은 거의 모든 역사의 독보적인 이론적인 주체로 간주하고, 인도 페루 케냐 등의 제 3 세계 역사는 결손이거나 이행에 실패한 것으로 가르쳐왔고, 이렇게 야만적인 국가들은 ‘역사의 상상적 대합실’에서 식민화의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이제 “유럽에서 기원한 근대성의 세계사적 보편성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의문이 보다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우리 세계사 교과서가 압도적으로 유럽중심적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 외에도 아시아사나 자국사 서술에서도 드러나는 유럽중심주의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런 유럽중심주의의 뿌리는 일본의 경우, 거슬러 올라가 이미 메이지시대에서부터 찾아야 할 정도로 긴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일본에서 시작된 유럽중심주의에서는 유럽사는 일본이 국민국가 형성과 근대화를 위해 무언가 배워야하는 지향점으로 설정되었던 사실과 관련된다. 이에 비해 아시아와 그 역사는 일본이 근대화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역사학의 유럽중심주의는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자국사교육이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지향하였다면, 외국사 과정에서는 서구 편중주의가 현저하게 드러났다. 특히 현대사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역사교육 과정에서 자국문화의 우수성, 나아가 중화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일본의 脫亞入歐는 문명/야만이라는 서구의 논리를 스스로 내면화하면서, 스스로를 문명세계의 일원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은 중국/서양이라는 이항대립적 구조로서 세계를 이해한 것이다. 중체서용론은 스스로를 또 하나의 대등한 보편으로 설정하면서, 서구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중국문명, 후기에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상정한 것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나타난 유럽중심주의는 식민지국가였던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세계사의 시대구분이나 기술에서 서구의 역사는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를 이해하는 틀도 서구의 기준에 기초하고 있는 데, 이는 역사발전단계론(theory of historical stage)을 광범하게 받아들인 데서 잘 드러난다. 이는 서구의 경험에서도 출현한 일직선적인 발전론을 보편적인 세계사로 상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중심주의 경향은 일본의 역사학에서 그대로 이전된 것이다. 그러나 거의 60 년의 탈식민 단계를 거쳐 온 한국에서 여전히 유럽중심주의가 역사학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은 최근의 경제성장과 함께 생겨난 한국인의 대국주의 욕구와 그 배경으로서의 서구숭배를 반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팽창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경쟁체제를 계속한다면, 세계인 모두가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학이 “비서구사회의 역동성과 그 사회들이 유럽중심의 근대사에 포섭되어 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다시 연구해야 하고, 식민주의가 역으로 중심부 유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사적 맥락을 새로이 읽어내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선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문화적인 혼합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비교연구, 관계사 그리고

문화의 전이(transfer)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유럽중심주의를 넘어 '유럽의 지방화'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내 안의 민족주의를 넘어

우리의 역사인식 속에 암암리에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적 시각이 내면화하는 과정에는 민족주의가 그 동력을 부여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전지구화의 시대는 유례없는 인구 이동을 불러 오면서도 역으로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데다가, 동아시아 3 국의 경우 유독 민족주의적 열광이 강렬하게 드러난다. 이가 인근국가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역사화해를 위한 기반을 끊임없이 잠식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비서구 국가에서는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동력으로 작용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이제 “유럽” 대신에 스스로를 지역적으로 구성된 중심부에 배치하면서면서 유럽중심주의와 동일한 서사의 지역판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는 제 3 세계 특유의 근대성의 역사를 놓치면서, 어느 누구도 체제로서의 후기자본주의가 제 3 세계의 작동엔진이 될 수 있음을 헤아리는 지구적 관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간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민족주의 역사학 대 탈민족주의 역사학의 논쟁이 치열하였고, 그 와중에 식민지근대화론도 이 논쟁을 격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주의 역사학 대 탈민족주의 역사학은 그 자체가 양극화되고, 이분법적이어서 성찰적인 접근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역사발전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를 횡단하는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nasnational history, 이하 횡단역사학이라 칭함)의 관점과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횡단역사학 연구는 서구에서 그 논의가 출발하였다. 일국사 중심의 역사서술은 정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는 18 세기 영국의 국민국가 건설의 부산물이라는 주장이다. 현대사가 점점 더 경제의 세계화, 의사소통의 세계화, 인구 증가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 속에서, 변화된 현실인식과 문제인식을 고민하는 한에 있어서 일국사 중심의 역사연구는 이론적으로 여러 불충분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횡단역사학은 역사연구를 비유럽지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국가를 횡단하여 비교를 시도한다. 즉 유럽인의 경우 유럽적인 시각에 매몰되었던 한계를 넘어서자는 것이다. 일국사 서술에 대한 그간의 집착을 벗어나 보면, 지역적 · 국가적 ·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역사적 현상들의 크기와 영향력을 확인하게 되고, 나아가서 보다 거시적이거나 지구적인 연관성을 역사학이 새로이 조명하고 의미화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3 국의 경우에, 횡단의 역사학은 협력과 공존의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계기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횡단역사학이 탈민족주의 역사학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국가의 자율성 상실과 인구이동과 인구구성의 다양화로 인해 국가를 넘어선 생활세계의 결합이 현저히



늘어났지만, 국민국가는 여전히 사법, 교육, 사회 복지 등을 통제하면서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횡단역사학 연구의 대표주자인 텔런(David Thelen)은 국가 횡단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 사상, 제도, 문화가 국민국가를 넘거나, 그 주변이나 주변으로, 혹은 그것을 통해서 작동하는가를 조사하고, 어떻게 국경선이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을 포괄하거나 규정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독일의 오스터함멜(Jürgen Osterhammel)은 국가횡단적 관계(transnational relations)를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세계정치의 상호의존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상호관계를 만들어가는 ‘행위주체’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전제로 할 경우 우리는 과거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관계도 새로이 성찰할 수 있다. 그간의 역사서술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 무엇을 수출하였는가’가 핵심적인 관심이었지, 식민지 지배자와 식민지인 사이의 복잡한 조정 과정이나 그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식민지는 서구문물의 도입 외에도 자신들 특유의 사회형태를 발전시켜간 측면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식민지가 역으로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횡단역사학에서는 구조 중심의 역사분석이나 선형적(lineal) 역사발전 모델에 따른 역사발전단계론을 넘어,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기초로 간주되는 영토성(territoriality)이 근대국가의 인위적인 산물임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지리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역사적 공간의 문제도 관심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대안을 찾아

역사분쟁이 첨예화되던 지난 몇 년 사이에 당사국의 역사가 사이의 대화가 활발해졌다. 또한 여전히 민족주의적 열망이 강한 대중적 기반을 지닌 동아시아 3 국,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현행질서를 넘어서는 상시적인 다자간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역사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자국의 교과서나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도 많아졌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화해를 둘러싼 미래의 전망은 밝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화해와 상생의 모색이 역사가들이나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역사적 화해를 위한 작은 노력들이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역사가들이 나쁜 기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교연구, 관계사 그리고 문화의 전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국가 간의 상호관계를 통한 문화적인 혼혈(hybridity)을 읽어내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서술된 역사 사실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더불어 공유된 역사기억의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맥락에서 전문적인 역사가 혹은 맨발의 역사가(barefoot historians)들이 주축이 되어 ‘민족주의의 동심원적인 확대가 아닌, 민족 문화 · 가치 · 전통이 다원적으로 공존하면서, 느슨하게 서로 결합된 열린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지역담론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갈등과 군사적 각축전이 첨예한 동아시아에서는, 유럽공동체처럼,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국민국가의 중간 매개체인 지역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담론이 하나의 ‘지적 실험’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의사소통 체계에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화해를 위한 매개고리로서의 역사가의 역할과 NG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 **Imperialism, expansionism, nationalism & history reconciliation**

**Chung, Hyun Back**

**(Korea, Professor of History department of Sungkyunkwan University)**

As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represented by computer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is accelerated under the dash of waves of globalization, we realize that the task of history science analyzing the past is confronted more by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future. In this sense of problem, historians are required to look back the past they had described with more introspective eyes. In addition, in this process, they have started to realize that history science is history description of the past, in particular, country-oriented history description is the by-product of modern history science but it has so many limitations for re-composing historical truth. Now, history science and furthermore, history education is in the situation to introspect by themselves calmly in stride.

If we introspect ourselves with this kind of searching attitude, we become to confirm how much we had looked the history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ism in the past and while we consider ourselves as ‘a victim by the powerful countries’ but we happen to confirm that we had imperial eyes within ourselves and how much strong growth-centered mind was rooted in our consciousness. (unconsciousness) In addition, looking back the process of historical conflict among Korea/China/Japan in the past 20 years, we confirm that history science failed to weaken distorted politicization and more radical confrontation of conflicts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we did not even put our steps forward for aiming reconciliation and peaceful community. In this sense, through this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suggest simple and modest proposals for reading imperialism, expansionism, and nationalism in ourselves and further for exploring historical reconciliation.

### **Imperialism in myself and expansionism in myself**

First, imperialism in ourselves would be Eurocentrism inherent within the history of the three countries of the East Asia. Recently, among historians, voices of criticism of Eurocentrism are

becoming louder. This is the suggestion of problems of history description and history educatio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history of Europe and the North America as universal one and have taken non-Western world as peripheral one in the past. Europe is considered as the prime theoretical subject of almost all histories and we have taught that the history of the third world such as India, Peru, and Kenya as defect or failure of implementation and so, these barbaric countries had to wait until the period of colonization in 'imaginary waiting lounge of the history.' Now the question about "The meaning of world historical universality of the modernism originated from Europe" has been asked further and Eurocentrism appearing in the description of Asian history or their own nations is becoming an issue besides our world history textbooks have completely outnumbered Europe-oriented contents.

In case of Japan for this kind of root for Eurocentrism has a long tradition already in the period of Meiji that we have to trace back. In Eurocentrism started from Japan, it is related to the facts that Europe history had been set as an aiming point for Japan to learn something for formation of nationalistic nation and modernization. In comparison, Asia and its history was considered as the object of conquest for Japanese modernization.

Eurocentrism in history science was the same in case of China. If education of Chinese history had aimed for nationalism based on San-Min-Chu-I, (the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foreign history, Europe-orientation was prominent. In particular, in the modern history, this phenomenon was more prominent. Concurrently, in the process of history education, superiority of Chinese own culture and furthermore, Zhong Hwa (China is the center of All) nationalism was continuously emphasized.

If Japan's Getting out of Asia and Entering into the Western Society had regulated Japan as one member of civilized world by themselves through internalizing the western logics of civilization/barbarism, recognition of China about the East Asia was the understanding of the world as a structure of bipolar confrontation of China/Western Society. While the "Theory of Main China and Use of the West" had set China as one more equal universality and they set China civilization and later Chinese socialism as counterproposal to supercede the western capitalism.

Eurocentrism emerged in Japan and China was appeared the same in a colonized country of Korea. In chronological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the world history, the Western history had taken privileged position. Frame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is also based on the standards of the West and this is well expressed in accepting broadly the theory of historical stage. This can be said to set a straight-line development theory derived from the Western experiences as universality of the world history. This inclination of Eurocentrism was transferred from Japan's history science as it was. However, the fact that Eurocentrism is still the mainstream in history science in Korea where almost

60 years' stage of getting out of colonialism can be said to reflect desire of Korean people for a great country and worship for the Western society in its background, which was generated together with the recent economic growth.

Now we all have to get out of this expansionism. Because we cannot avoid the crisis of common destruction of all global people if we continue the current competition system. History science shall study again “dynamism of non-western society and specific process of its societies to be subsumed into the modern history based on Eurocentrism” and it is also important to analyze impacts of colonialism on central Europe on the contrary. Paradigm of counterproposal for reading the context of the world history shall not be demanded just in proclamation but cultural compound shall be explained through specific researches. Comparative researches, related history, and researches on transfer of culture shall be carried out and in here, ‘localization of Europe’ shall be also discussed going beyond Eurocentrism.

### **Going beyond nationalism in myself**

It is no exaggeration that nationalism gains force in the processes of internalization of imperialistic and expansionistic viewpoint in our recognition of the history. In globalization period, while unprecedented movement of population is occurring, on the contrary, nationalistic trend is being reinforced and in case of the three countries of the East Asia, enthusiasm of nationalism appears strongly typically. This is the fact that we all know and share that this weakens mutual cooperati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and encroaches ceaselessly the foundation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Of course, in non-western societies, it is already well known fact nationalism has played a role of resisting imperialism. However, nationalism of the East Asia is now reproducing regional diagram as the same description as Eurocentrism by deploying themselves in the center of region composed instead of “Europe.” This is failing to see global viewpoint that post-capitalism as a system can become an operation engine of the third world while losing the modernism history typical to the third world.

Until now,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y science, debate between nationalism history science vs casting off/getting out of nationalism history science was fierce and during the process, it is true that modernization by colony also had contributed to agitate this debate. However, since nationalism history science vs casting off/getting out of nationalism history science is in itself bipolar and dichotomy, it is difficult to have introspect approach and also difficult to find out the diversity of historical development.

in this sense, I would like to suggest viewpoint and methodology of history that transcend countries, that is transnational history. (Hereinafter called as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Researches on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has an origination in its discussion in the West. History description centered on one country is not normal and it is insisted that it is rather the by-product of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the United Kingdom in the 18th century. As far as modern history concerns on changed recognition of reality and recognition of problems among more globalization of economy, globalization of communication, increase of population, and destruction of ecology, researches on history based on one country is not sufficient theoretically.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expands researches of history into non-Europe region and furthermore, tries to compare by transcending counties. That is, in case of Europe, it means to go over the limit only tied to the European viewpoint. Once persistence in the past for the description of one country's history is overcome, we can confirm scale and impacts of historical phenomena transcendent of regional, national, and cultural boundaries and furthermore, we can find the necessity that history science needs to have new illumination and to find new meaning of macro and global connectivity. In particular, in case of the three countries of the East Asia,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open the history of cooperation and co-existence.

However,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is not carrying the banner of casting off/getting out of nationalism history science. It is because combination of the world living going beyond the boundaries of nation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loss of autonomy of people's republics, migration of population, and diversification of composition of population but people's republics are still exercising lots of social impacts through controls of jurisdicti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s. A typical researcher of studies on the USA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David Thelen has defined the transnational history as 'study how people, ideology, system, and culture go beyond people's republic or to investigate how it operates in its foundation or vicinity or through itself, and to explain how national boundaries comprehend or regulate historical experiences of people.' Jürgen Osterhammel of Germany has said that transnational relations shall be understood indicating mutual dependence of the world politics going beyond offici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s but furthermore, has suggested to pay attention to 'the subject of behavior' who makes that mutual relationship.

If we presume this mutual relation as prerequisite, we can newly introspect the relation between the past colony and imperialism. In the past history description, 'what did imperialistic nations export to their colonies?' was key attention but attention to complicated adjustment processes or mutual relation between colonial rulers and colonial residents was few.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typical formation of their own society was not the object of attention except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ivilization by colonized countries. Like the same, what and how did colonized countries had provided impacts on Europe on the contrary was not paid attention.

Now in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we have to increase attention to network by going over the phase theory of historical development according to history analysis focusing on structure or lineal

historical development model. Also we shall increase attention to geography together with introspect regarding the fact that territoriality, which is considered as the foundation of composition of people's nation, is artificial by-product of modern nations and also shall include the issue of historical space in the scope of attention.

### **Searching for counterproposal**

In the past several years during acute confrontation in historical conflicts, dialogues among historians of the parties have become very active. In addition, recognition is being increased that unless permanent multinational cooperation system going beyond current order of the North East is established among the three countries of the East Asia, Korea/China/Japan with the foundation of the general publics who still have strong nationalistic desires,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historical conflict. Simultaneously, voices of criticism and self-reflection regarding textbooks of their countries and history education has become a lot. In this point, I believe that prospect of the future surrounding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has become brighter. However, exploration of reconciliation and mutual survival are still progressing only centering on historians or few civil organizations. But we have to explore ways to further proliferate these small efforts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into more general public.

First, I propose that historians shall make the history to be more objective to prevent a vicious cycle of bad memories. We have to read cultural hybridity through mutual relation among many countries by carrying out researches on comparison studies, relation history, and transfer of culture. In addition, efforts to share the objectively described historical facts are also important. Also positive activities of civil organizations for expanding shared historical memory are more required.

Finally, in this main stream, I propose to develop regional conversations aiming for 'loosely and mutually combined open network in the co-existence of racial culture, value, and tradition multi-dimensionally instead of concentric expansion of nationalism' while professional historians or barefoot historians shall become the main force. For example, in the East Asia where conflicts and military competition are acute, I propose that dialogues for realization of regional community, which is a middle medium for the world capitalism system and people's nations, shall be carried out as one 'intellectual experiment' like European Union. This will be able to provide new contents in communication system taking place surrounding the issue of history. In this point, the role of historians and the role of NGO as a medium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have become more important.

## 帝国主义、扩张主义、民族主义及历史和解

Chung, Hyun Back

(Korea, Professor of History department of Sungkyunkwan University)

随着全球化的潮流和以计算机和移动通信技术为代表的科技迅猛发展，我们意识到需要分析过去的史学课题，如今与对未来的更加本源性的思考所相连。这种问题意识，使史学家们以更加省察的视角去反省过去自己所叙述的历史。而在这个过程中，虽然史学是历史性叙述，尤其，以国家为中心的历史叙述是近代史学的产物，但是要想重组历史的真实性，还是存在很大局限性的。如今，史学以及历史教育迎来需冷静反省自己的时点。

反省自己的过去我们就可以意识到，迄今为止我们是以狭隘的民族主义视角来看待历史。尽管我们自认为是“强国压迫的受害者”，却潜藏着帝国主义的视野和非常强烈的“发展第一”观念。回顾过去20年来韩、中、日三国之间的历史矛盾我们就可得知，史学不仅没有缓和歪曲的政治化与矛盾的尖锐化，而且也没有推进面向和解与和平共处的进程。因此，想通过这次发表洞察自己潜藏着的帝国主义、扩张主义与民族主义，进而提出摸索历史性和解的小小应对之策。

### 潜藏着的帝国主义与扩张主义

我们所潜藏着的帝国主义首先可以说是东亚三国历史中隐藏着的欧洲中心主义。最近，谴责欧洲中心主义的历史学家日益增多。迄今为止的历史叙述与历史教育把欧美历史发展当作普遍真理，而非西方世界历史一直倍受冷落，这种谴责可以说是对这种历史叙述与历史教育的挑战。欧洲历史被当作是所有历史中最独特的理论主题，而印度、秘鲁、肯尼亚等第三世界的历史则被看作是有缺陷和失败的历史，因此，“野蛮”的国家需要在“想象中的历史候车室”里一直等候到殖民化时代到来。如今，人们对“从欧洲起源的近代世界史普遍性所具有的意义”提出了疑惑，而我们的世界史教科书上占据压倒性地位的欧洲中心主义，以及在亚洲及本国历史叙述中也呈现出的欧洲中心主义也成为争论点。

这种欧洲中心主义根深蒂固，以日本为例，都可以追溯到明治时代。欧洲中心主义之所以能在



日本生根发芽，是因为日本当初为了国民国家的建设与近代化进程需要效仿什么。而对日本而言，亚洲与其历史则是需要由日本来促进近代化和统治的对象。

史学上的欧洲中心主义在中国也不例外。中国的私立教育追求基于三民主义的民族主义，而世界史中则出现了严重偏向西方历史的现象，在现代史中尤为明显。与此同时，中国在历史教育过程中，也持续强调本国文化的优越性与中华民族主义。

如果说日本的脱亚入欧是内在化文明与野蛮的西欧逻辑，并同时把自己定位为文明世界的一员，那么中国的东亚认识则以中国和西方的二项对立结构来理解世界的。中体西用论把自己设定为又一个对等的普遍存在，从而作为可超越西欧资本主义的对策提出中国文明，后期则提出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

曾经在日本和中国出现的欧洲中心主义，也同样出现在曾为殖民地国家的韩国。在世界史的时代划分与记述中，西欧历史占据至高无上的地位。理解韩国史的框架也以西欧为基准，普遍接受历史发展阶段论(theory of historical stage)的现象很好地说明这一点。这可以说是从西欧经验得出的直线型发展论被当作普遍的世界史。这种欧洲中心主义倾向是原封不动地效仿日本历史学的缘故。但在历经60年非殖民时代的韩国，欧洲中心主义仍然成为史学主流，这可以说随着最近的经济增长，韩国人心中产生了大国主义欲求，而对西欧的崇拜则是这种欲求产生的根源。

如今，我们应该摆脱这种扩张主义。如果我们坚持目前的竞争体制，那么全世界人都无法摆脱攻灭危机。史学应该重新研究“非西欧社会的活力，与其社会成为欧洲中心主义近代史俘虏的具体过程”。反过来，研究和分析殖民主义对作为中心的欧洲所带来的影响也是非常重要的。这并非要求史学提出可重新审阅世界史脉络的替代方案，而是说应该通过具体研究说明文化的融合。不仅要开展比较研究、关系史以及文化转变，还要讨论超越欧洲中心主义的“欧洲地方化”。

### 超越潜藏的民族主义

审视我们的历史认知则不难发现，帝国主义和扩张主义视角被悄悄内在化的过程中，民族主义一直成为其动力所在。全球化时代引发前所未有的人口移动，可民族主义倾向反而日益强化。以东亚三国为例，其民族主义的狂热程度尤为明显。众所周知，这严重侵蚀相邻国家之间的相互合作与历史和解基础。

当然，在非西欧国家的民族主义一直是对抗帝国主义的原动力，这是无可厚非的事实。但东亚的民族主义却驱逐“欧洲”，把自身安置于区域的中心位置，从而打造与欧洲中心主义别无两样的区域版叙事。这等于忽略了第三世界的近代历史，以及后期资本主义体制可以成为第三世界引擎的众所周知的全球性观点。

期间，韩国的史学学界中一直存在民族主义史学对非民族主义史学之间的激烈纷争，而殖民地近代论进一步激化这种纷争也是事实。但民族主义史学和非民族主义史学本身就是两极化和二分状态，因此不仅难以以反省的角度进行接近，而且难以把握历史发展的多样性。

鉴于此，想提出超越国家的史学(transnational history, 以下称横穿历史学)观点与方法论。横穿历史学发源于西欧，认为以一个国家为中心的历史叙述并不正常，是 18 世纪英国的国民国家建设的副产物。换言之，随着经济全球化、沟通全球化、人口增长及生态环境的破坏，考虑不同于以往的现实认知与问题认知方面，一国为中心的历史研究呈现出多个理论性缺陷。横穿历史学向非欧洲地区扩张历史研究，进而试着进行超越国家的比较，即这意味着欧洲人应超越欧洲式视角界限。当我们摆脱迄今为止的对一国史叙述的执迷不悟，就可以看到超越地区、国家和文化界限的历史现象之大小与影响力，进而发现史学需要用崭新的观点看待更加宏观和全球性问题的必要性。尤其对东亚三国而言，横穿历史学将为开创合作与共存的历史打造新的契机。

但横穿历史学并不标榜非民族主义历史学。因国民国家的自律性丧失与人口移动，以及人口构成的多样化，超越国家概念的生活体系结合已明显增加，但国民国家仍在管制司法、教育、社会福利等，行使诸多社会影响力。美国的横穿历史学研究代表人特伦(David Thelen)对横穿历史学做出如下定义，“横穿历史学是指调查人类、思想、制度、文化如何超越国家，或通过其底层和周边的启动，来说明国境以什么样的方式囊括和规定人们的历史经验的学科”。德国的奥斯特哈默尔(Jürgen Osterhammel)建议，要把横穿国家的关系(transnational relations)理解为超越政府之间正式关系的世界政治相互依存度，进而关注打造其相互关系的“行为主体”。

把这种相互关系作为前提，我们就可以重新反省过去殖民地与帝国主义之间的关系。在迄今为止的历史叙述中最核心的关注点是“帝国主义国家向殖民地出口了什么”，而对殖民地支配者与被支配者之间复杂的调整过程，及其相互关系的关注则甚少。殖民地除了引进西欧文物以外，还发展了自身特有的社会形态，而这却未成为受到关注的对象。同样，殖民地对欧洲所带来的影响也未受到关注。

如今，横穿历史学应该超越以结构为中心的历史分析，或直线型(lineal)历史发展模式的历史发展阶段论，提高对网络的关注度。同样，作为国民国家构成基础的领土性(territoriality)，应与对近代国家人为产物的反省同步提高对地理学的关注，从而把历史空间问题也归入关注领域。

### 寻找应对之策

历史纷争变得更加尖锐的过去几年，当事国历史学家之间的对话却变得更加活跃。很多人认为目前仍然拥有广泛而强烈民族主义的东亚三国中、日、韩，除非建立超越东北亚的多方合作体系，否则难以解除历史矛盾。与此同时，对自国教科书或历史教育的谴责与反省之声也日益升高，可见围绕历史和解的前景还是光明的。目前，仍然有以和解与共生为目的的研究，以历史学家和几个市民团体为中心开展。我们应该再接再厉，摸索可以把历史和解扩散到大众的道路。

首先建议历史学家们更加客观地拟写历史，以便防止痛苦记忆的恶性循环。我们应该通过对比研究、关系史以及文化转变，洞察基于各国之间相互关系上的文学融合，而且要努力共享客观的历史事实。同时，要积极推进市民社会的相关活动，从而扩散大家得以共享的历史记忆。

最后建议，专业历史学家或民间历史学家(barefoot historians)发展有助于“多元化的民族文化、价值和传统共存，而非民族主义同心圆盲目扩大，宽松但互相结合的开放网络”的区域对话。例如，存在尖锐的矛盾与军事对弈的东亚，应开展类似欧洲共同体的世界资本主义体制与国民国家之间的媒介，即目的在于构筑地区共同体的对话机制。这会围绕历史问题展开的沟通体系提供新的内容。因此，作为历史和解的媒介，历史学家与 NGO 的作用变得更加重要。

帝國主義、膨脹主義、民族主義そして歴史和解

Chung, Hyun Back

(Korea, Professor of History department of Sungkyunkwan University)

全地球化(globalization)の波が押し寄せ、コンピューターと移動通信で代表される科学技術の発展が加速化する中で、過去を分析し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歴史学の課題は、未来にいたより根源的な質問と  
触れ合っていることを悟るようになる。このような問題意識から、歴史家たちはより省察的な目で自らが述べてきた過去を振り返ることが要求されるようになった。また、この過程において歴史学はその間の歴史敘述、特に國家中心の歴史敘述が近代歴史学の産物であるが、歴史的眞實を再構成するには多くの限界があるということを知り始めた。もう歴史学、ひいては歴史教育は冷静に自らを省察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処するようになった。

このような省察的姿勢とともに自らを振り返ると、これまで我々はどれほど民族主義の視点から歴史を眺め、「強大國による被害者」を自任しながらも、我々の内部に自ら帝國主義の目(imperial eyes)を持っており、我々の(無)意識の中にはどれほど強い成長中心主義が根を下ろしているかを確かめるようになる。また、去る 20 餘年間進んできた韓/中/日間の歴史葛藤過程を振り返ると、我々は歴史学が大衆の中で歪曲した政治化と葛藤の尖鋭化を弱体化させることもできなく、和解と平和共同體を目指す第一歩もうまく踏み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確かめるようになる。このような意味で、この発表を通じて私の中の帝國主義、膨脹主義、民族主義を読み出し、さらには歴史和解を摸索する素朴な提案を取り上げようとする。

## 私の中の帝國主義(Imperialism in myself)、私の中の膨脹主義

私の中の帝國主義は先ず、東アジア 3 國の歴史の中に内在化したヨーロッパ中心主義(Eurocentrism)であろう。最近、歴史家たちの間でヨーロッパ中心主義を批判する声が高まっている。これはヨーロッパと北米の歴史發展を普遍的なことと見做し、非西歐世界を周辺化してきたその間の歴史敘述と歴史教育に対する問題提起である。ヨーロッパがほとんどあらゆる歴史の獨歩的な理論的主體として見做され、インド、ペルー、ケニアなどの第 3 世界の歴史は缺損や移行に失敗したと教えて来、このように、野蠻的な國家たちは「歴史の想像的待合室」で植民化の時期まで待た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もう「ヨーロッパから起源した近代性の世界史的な普遍性が持つ意味」についての疑問がさらに提起するに至り、我が世界史教科書が壓倒的にヨーロッパ中心的内容を持っていること以外にも、アジア史や自國史の敘述においても現われるヨーロッパ中心主義が問題視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ヨーロッパ中心主義の根は日本の場合、さかのぼって既に明治時代から探さなければならぬほどに長い伝統を持っている。日本から始まったヨーロッパ中心主義においては、ヨーロッパ史は日本が國民國家の形成と近代化のために、何か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指向點として設定された事實と関連する。これに比べて、アジアとその歴史は日本が近代化し支配しなければならない對象として見做された。

歴史學のヨーロッパ中心主義は中國の場合にも同様に現われた。自國史の教育が三民主義に基礎した民族主義を指向したら、外國史の過程においては西歐偏重主義が著しく現われた。特に、現代史においてはこのような現象が著しかった。同時に、歴史教育の過程において、自國文化の優秀性、ひいては中華民族主義は持續的に強調された。

日本の脱亞入歐は文明/野蠻という西歐の論理を自ら内面化しながら、自らを文明世界の一員と定めたなら、中國の東アジア認識は中國/西洋という二項對立的な構造として世界を理解したのである。中體西用論は自らをまた一つの對等な普遍と設定しながら、西歐資本主義を超えることができる代案として、中國文明、後期には中國式社會主義を想定したのである。日本と中國から現われたヨーロッパ中心主義は、植民地國家であった韓國においてもそのまま現われた。世界史の時代區分や記述において、西歐の歴史は特權的な地位を占めている。韓國史を理解する枠も西歐の基準に基づいているが、これは歴史發展段階論(theory of historical

stage)を廣範に受け入れたことからよく現われる。これは西歐の經驗から導出した一直線的な發展論を普遍的な世界史と想定することだと言える。このようなヨーロッパ中心主義の傾向は、日本の歴史學からそのまま移轉したのである。しかし、ほとんど 60 年の脱植民段階

を経てきた韓国において、相変わらずヨーロッパ中心主義が歴史学における主流をなすことは、最近の経済成長とともに生じた韓国人の大國主義の欲求とその背景としての西歐崇拜を反映することだと言える。

もう、我々はこのような膨脹主義から脱しなければならない。現在の競争体制を続いたら、世界人みんなが共滅の危機から脱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ある。歴史学が「非西歐社会の力動性とその社会たちがヨーロッパ中心の近代史に包摂されていく具体的な過程」を再び研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植民主義が逆に中心部のヨーロッパに及んだ影響を分析することも重要である。世界史的な脈絡を新たに読み出す代案的なパラダイムを宣言的に求めるのではなく、具体的な研究を通じて、文化的な混合を説明するべきである。比較研究、関係史そして文化の轉移(transfer)についての研究が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こでヨーロッパ中心主義を超えて「ヨーロッパの地方化」も論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私の中の民族主義を超えて

我々の歴史認識の中に、暗暗裡に帝國主義的な・膨脹主義的な視点が内面化する過程においては、民族主義がその動力を付与し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全球化の時代は類例のない人口移動を惹き起こしながらも、逆に民族主義の傾向が強化されている上で、東アジア3國の場合、ただ一つ民族主義的な熱狂が強烈に現われる。これが隣近國家間な相互協力関係を弱体化させ、歴史和解のための基盤を絶え間なく蠶食していることは、私たちみんなが共有している事実である。

勿論、非西歐國家においては民族主義が帝國主義に抵抗する動力として働いてきた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しかし、東アジアの民族主義はもう「ヨーロッパ」の代わりに自らを地域的に構成した中心部に配置しながら、ヨーロッパ中心主義と同じ叙事の地域版を再生産している。これは第3世界特有の近代性の歴史を逃しながら、体制としての後期資本主義が第3世界の作動エンジン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察する地球的な観点をだれも看過することである。

その間、韓国の歴史学界においては、民族主義歴史学對脱民族主義歴史学の論争が熾烈し、その渦中に植民地近代化論もこの論争を激化させるのに寄與したのも事実である。しかし、民族主義歴史学對脱民族主義歴史学は、それ自體が兩極化され二分法的であるので、省察的な接近を難しくさせるだけでなく、歴史發展の多様性を把握しにくくさせる。

このような脈絡から、國家を横斷するトランス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transnational history、以下横斷歴史學という)の觀點と方法論を提案しようとする。横斷歴史學の研究は西歐からその論議が出発した。一國史中心の歴史敘述は正常的ではなく、却ってこれは 18 世紀英國の國民國家建設の副産物だという主張である。現代史がますます經濟の世界化、意思疏通の世界化、人口増加そして生態系の破壊の中で、變化した現實認識と問題認識を苦しむ限りにおいて、一國史中心の歴史研究は理論的にいろいろな不十分性をさらけ出すということである。横斷歴史學は歴史研究を非ヨーロッパ地域へ擴大し、ひいては國家を横斷して比較を試圖する。即ち、ヨーロッパ人の場合、ヨーロッパ的な視点に埋没された限界を超えようということである。一國史の敘述に対しこれまでの執着から脱してみると、地域的・國家的・文化的境界を超える歴史的現象たちの大きさと影響力を確かめるようになり、ひいてはより巨視的や地球的な連関性を歴史學が新たに照明し意味化する必要性を見つけ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特に、東アジア 3 國の場合に、横斷の歴史學は協力と共存の歴史を開いていくための切っ掛けの用意に大きく寄与できるだろう。

ところが、横斷歴史學は脱民族主義歴史學を標榜するのではない。國民國家の自律性喪失と人口移動と人口構成の多様化によって、國家を超えた生活世界の結合が著しく増えたが、國民國家は相変わらず司法・教育・社會福祉などを統制しながら、多くの社會的影響力を行使しているからである。米國の横斷歴史學研究の代表走者であるテーレン(David Thelen)は、國家横斷の歴史を「どういふふう人間・思想・制度・文化が國民國家を超えるか、またその底辺や周辺へあるいはそれを通じて作動するのかを調査し、どういふふう國境線が人々の歴史的經驗を包括するとか規定するかを説明すること」と定義した。獨逸のオースタハメル(Jürgen Osterhammel)は、國家横斷的關係(transnational relations)を政府間の公式的な關係を超える世界政治の相互依存性を指稱することと理解するが、ここでもう一歩進んで、その相互關係をつくっていく「行爲主體」に注目することを提案する。

このような相互關係を前提とする場合、我々は過去の植民地と帝國主義の關係も新たに省察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間の歴史敘述においては「帝國主義國家たちが植民地に何を輸出したか」が核心的な關心であり、植民地の支配者と植民地人間との複雑な調整過程やその相互關係についての關心は少なかった。植民地は西歐文物の導入以外にも、自分たちならでの社會形態を發展させていった側面は、關心の對象にならなかった。同様に、植民地が逆にヨーロッパ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んでかに注目しなかったのである。

もう、横断歴史学においては構造中心の歴史分析や線形的(lineal)歴史発展モデルに従う歴史発展段階論を超えて、ネットワークについての関心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同様に、國民國家を構成する基礎と見做す領土性(territoriality)が、近代國家の人爲的な産物であることについての省察とともに、地理学についての関心を高めながら、歴史的空間の問題も関心の領域に包含させるべきである。

## 代案を探して

歴史紛争が尖鋭化していた去る何年の間に當事國の歴史家との対話が盛んになった。また、相変わらず民族主義的な熱望が強い大衆的基盤を持っている東アジア3國、韓/中/日を中心として、東北亞の現行秩序を超える常時的な多者間協力システムが構築しなければ、歴史葛藤を解消しにくいという認識が高まっている。同時に、自國の教科書や歴史教育に対する批判と省察の声も多くなった。このような点から歴史的な和解をめぐった未來の展望が明るくなったと思う。しかし、相変わらず和解と相生の摸索が歴史家たちやいくつかの市民團體を中心として進行している。ところが、もっと進んでいって、歴史的和解のための小さい努力たちがより大衆的に擴散する方法を摸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先ず、歴史家たちが悪い記憶の悪循環を断ち切るために、歴史をより客観的につくることを提案しようとする。比較研究、關係史そして文化の轉移についての研究を通じて、様々な國家間の相互關係を通じた文化的な混血(hybridity)を読み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客観的に敘述された歴史事實を共有しようとする努力も重要である。合わせて、共有された歴史記憶の擴散のための市民社會の活動もより積極的に要求される。

最後に、このような脈絡から専門的な歴史家または素足の歴史家(barefoot historians)たちが主軸になって、「民族主義の同心圓的な擴大ではない、民族文化・價值・傳統が多元的に共存しながら、緩やかに互いに結合した開けたネットワーク」を目指す地域談論を發展させることを提案する。例えば、葛藤と軍事的な角逐戦が尖鋭な東アジアにおいては、ヨーロッパ共同體のように、世界資本主義體制と國民國家の中間媒介體である地域共同體の實現のための談論が一つの「知的實驗」として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は歴史問題をめぐって生じる意思疏通體系に新しいコンテンツが提供できるはずである。このような点から、歴史和解のための媒介キーとしての歴史家の役割とNGOの役割がもっと重要になった。

## 국가, 기업 및 시민사회의 역사적 책임(독일 사례중심으로)

균터 자토호프

(독일, 기억·책임·미래 재단 사무총장)

I. 1933년에서 1945년 사이 국가 사회주의 하에서 행해진 범죄들을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자비한 범죄들은 다음과 같다.

- 유럽계 유대인 6 백만 명 및 신티와 로마 시민 5 십만 명 살상
- 6 천만 명에 이르는 죽음을 초래한 세계 2 차 대전과 같은 정복 전쟁 에 대한 책임
- 고국에서 쫓겨난 1 천 2 백만의 사람들이 정부 기관과 사기업에서 종종 참담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독일로의 강제 이송

국가 사회주의자 정권의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독일은 “문명화된 국가들 대열”에서 스스로를 배제시키게 되었다. 독일이라는 국가의 존엄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1945년 이후에 독일과 독일 국민들은 더 이상 인류 문명의 “거울을 쳐다 볼 수 없었다.” 1945년 이후 범죄의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독일인이 대답해야 했던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되돌릴 방법은 없는가? 누가 저지른 범죄인가? 그리고 질문은 이어진다. 기억을 간직하고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면서 희생자들에게 갚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독일은 국가 사회주의 정권의 재앙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독일은 1945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반대 세력에 의해 해방을 얻은 것이다. (1946-48년 도쿄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1945년과 1946년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연합군에 의해 독일이 점령당하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독일이 역사적 불의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은 다시 “문명의 거울을 들여다 보기 위해” 반드시 해결 해야만 했던



“도덕적 사명”과 역사 속에 뿌리 박힌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독일은 50년간 차근차근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과정을 밟아야만 했다. 그리고 정의의 관점에서 이것은 단지 금전이 아닌 도덕성에 관한 것이었다.

II. 거꾸로 말하면, 미국이 냉전 체제에서의 동반자로 독일 연방 공화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나치 일당을 기소하는 등의 과거사 청산의지가 1940년대 말부터 이미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만약 나치 일당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임용된다면 독일민주공화국(GDR)에서 나치 전범자를 기소하는 일도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 십 년간 진행되어 왔다. 이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범죄자들과 이의 추종자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경험한 세대를 제외하고 학문적 정치적 논쟁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60년대 말 범죄자들과 그들의 자녀 사이에 세대간 갈등이 생겨났고 서독에서는 히틀러 치하의 독일 (the Third Reich)하에서 그들 부모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의 현실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써 독일 사회는 점진적으로 “공포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이러한 논쟁이 자녀세대에 대한 자기 규정과 부모세대와의 단절에 대한 주장에 의해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에야 변화하기 시작했다. 80년대 부터는 이러한 논쟁은 인류에 반하는 대학살과 범죄를 청산하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범죄자의 형사적 처벌과 희생자들 그리고 그들의 반환 및 보상요구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사회와 공모자들에 의한 자체규명이다.

독일에서 나치 범행을 청산하는 과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화적, 정치적 성숙의 과정이다.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1989년 역사적인 제동을 경험했다. ‘냉전’의 중요성이 독일로 하여금 나치 만행에 관한 중앙 및 동부 유럽 나라들로부터의 요구를 거절하도록 만든 것이다. 구 소련 지배의 붕괴와 1989년 이후 냉전의 종식 이후 동일한 요구가 더 이상 거절되거나 무시될 수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 50년간 독일은 나치 정권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환원”을 위해 새로운 법안과 금융적 해법들이 마련되었다. 1949년 이후 2007년 까지 독일은 국가 사회주의자들의 범행에 의한 피해자와 그들의 상속인들에게 총 650억 유로를 지불하였다.

III.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인류를 거스르는 범죄들- 특히 나치 정권하에서의 강제 노동- 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독일의 “현대적 답변”이며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시도이다.

본 재단은 세 가지의 정치적 변화로 2000년도에 법에 의해 창립되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의지-형성 단계로서 “독일 회사가 관여한 강제 노동자들을 위한 연방 제단” 창설을 희망하는 1998년 적록 연방 정부 선언에 의해 마침내 구체화 되었다. 두 번째는 1998년 이후 압력이 강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압력은 특히 독일 보상 법안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었던 나치하의 강제 노동 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중앙 유럽 국가 및 유대인 단체들에 의해 가해졌다. 마지막으로 강제 노동자들을 이용했거나 나치정권의 피해자들로부터 이익을 취한 독일 주요 사업체 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진행된 법률 절차이다.

오늘날의 51억만 유로에 해당하는 101억 마르크의 지원을 받아 창립된 본 재단은 좀더 복합적인 과거 청산의 문화적 달성 이라 불릴 만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대적”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몇 가지 중요한 관점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 a) 본 법률은 정치의 도덕화 과정에서 재정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당시 연방 대통령이었던 요한네스 라우가 강제 노역자들에게 독일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1998년 12월 공개적으로 사과함으로써 가시화 되었다.
- b) 나치 정권하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국가의 대표들과 피해자 단체의 대표들이 재단의 감사에 포함되었다.
- c) 법률제정 이전의 국제협상에서 국가나 개인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열쇠인 보상대상에 대한 주요 조항들이 이미 계약형태로 결정되었다.
- d) 보상요구의 접수, 처리, 결정 및 이행을 독일 사무실에서 진행하지 않고 “피해 국가” 정부에 의해 대부분이 결정되는 국제 파트너 단체에 의해 이루어 진다. 우리 재단은 파트너 단체가 법률을 적법하게 적용하는지를 감시할 뿐이다. 2007 년도에 종결된 이 협력 사업의 결과로 166 만 명 이상의 강제 노역자 및 그들의 법적 상속인들이 43억 7천만 유로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 e) 정치적인 접근은 “역사적 죄의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더 무게를 두었다. 이것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만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공감하는데 기여했다. 역설적으로 “범죄의 비난”은 국민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였고 희생자들의 고통과 관점에 대해 마음을 열고 희생자와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 f) 2007 년 보상금 지급의 완료와 더불어 본 재단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법률 부분 중 하나인 자원의 확보는 한편으로는 범행 및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도록 의도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다. 본 재단은 오늘날 유럽에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한 역사의 교훈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장려하며 국제적인 이해 및 인권 및 소수민족 권리 보호를 촉진한다.

본 재단은 독일과 국가 사회주의 하에서 고통 받았던 국가들 사이에 파트너십의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장기적 임무를 갖고 있다. 재단 초기 자본인 3억5천8백만 유로에 의해 생겨지는 수익으로 매년 약 8백만 유로를 다음 4가지 중점 분야와 관련된 국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지원한다:

- 본 재단은 지난 기억을 되살리고 젊은이들이 과거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본 재단은 민족들간의 이해와 인권을 도모하는 국제적인 대안들을 지원한다.
- 본 재단은 파트너 국가에 있는 국가 사회주의의 생존 피해자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한다.
- 본 재단은 젊은이 들이 이들의 살아있는 역사를 탐구할 수 있도록 강제 노역자들이 독일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본 재단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적극적 헌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외국인 혐오증, 반 유대주의, 인종차별과 맞서 싸운다.
- 본 재단은 독일, 중앙 및 동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에 의해 진행되는 사회, 문화 분야의 국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한다. 이러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고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본 재단은 이러한 프로그램들로 과거와 현재의 도전 사이에 기억과 책임의 다리를 건설하는 향후 과제를 표출하고자 한다.

IV. 본인의 설명은 그 동안 독일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여주고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들의 “숨겨진 논리”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본인은 그들만의 고유한 범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꼭 이러한 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각각의 국가는 피해보상과 피해자의 인권에 대처하고 역사의 거울 속에 솔직한 모습을 투영할 수 있는 그들만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를 청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향후 다가올 세대의 사회 및 국가간 화해를 저해하고 새로운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과 한국 같은 국가가 좀더 깊이 있는 진실과 역사 인식 그리고 과거에 대한 화해를 모색할 것을 장려하는 이유이다.

## Opening Symposium – Panel 4 \_ English

### *Remembrance of National Socialist injustice and war crimes,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promoting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as a future task*

Günter Saathoff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I. The crimes committed under National Socialism in the time of 1933 to 1945 are well nigh impossible for us to grasp today. The most egregious of these include

- the murder of six million European Jews and almost 500,000 Sinti and Roma,
- the responsibility for a war of conquest that culminated in the deaths of 60 million people in World War II, and
- the deportation of more than 12 million people from their home countries to Germany, where they were forced to work, often under desperate conditions, in public sector institu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Through the crimes of the National Socialist regime, Germany effectively excluded itself from the “family of civilised states”. When the dignity of the country was at issue, the German nation and the German population after 1945 could no longer “look into the mirror” of human civilisation. After 1945 the questions Germany had to answer when it looked in the mirror of its crimes, were: What did we do? Can we ever make amends? Who was guilty of all these crimes? And: What do we owe the victims, keep remembrance and create a new future on the Motto “Never again” ?

Let us remember, that Germany was not capable of liberating itself from the scourge of the National Socialist regime by itself. The country was liberated by the opposing forces – the victors in 1945. The Nuremberg War Crimes Trials in 1945/46 (like those in Tokyo in 1946-48) came about as a result of the fact that the German Reich was occupied and liberated by the Allies. And this initially bore consequences for the willingness and ability of the Germans to come to terms with historical injustice.

On that background, Germany needed fifty years, step by step, in a complicate historical and political process, to find ways on its obligation rooted in history and a “moral impetus”, what has to be done “to look into the mirror of civilization” again. And: in terms of justice this was’nt just about money, but about morality.

**II.** Conversely, from the end of the forties onwards, the will to persistently come to terms with the injustice, for example by prosecuting Nazi criminals, was already abating significantly because the USA neede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s an ally in the cold war. If they could be taken into service for the new state, Nazi war criminals were not consistently prosecuted in the GDR either.

The process of coming to terms with injustice has developed over the decades up to the present day in that it has detached itself more and more from the self-justification of perpetrators and hangers-on to be replaced by academic and political debates outside the generation that experienced the events in question.

At the end of the sixties, the generational conflict of the perpetrators’ children with their parents promoted the public discussion in West Germany on the conduct of their parents in the Third Reich. It was only with increasing distance in time from the reality of the crimes that German society gradually found the strength to “look the horror in the eye”. Thus, socially, this debate was initially cloaked in the discourse of the self-definition of the children’s generation and their disassociation from their parents’ generation. It became more differentiated only later. From the eighties onwards, the debate took an increasingly holistic approach to coming to terms with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where the most important dimensions may be identified as the criminal prosecution of the perpetrators, a turning towards the victims and their claims for restitution and compensation and (self-) clarification by society of the causes and social dynamics of complicity.

The process of coming to terms with Nazi injustice in Germany was subject to a cultural and political maturation process, which even now is not yet over.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it underwent a historical break in 1989. The significance of the “cold war” Germany allowed to reject claims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connection with Nazi injustice. It is not surprising that with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sphere of control, and with it the overcoming of the cold war from 1989 onwards, these same claims could no longer be denied and dismissed.

Germany over five decades created several laws and financial solutions as “compensation” and “restitution” for the victims of the Nazi-regime. From 1949 on, German made payments to victims or their heirs for National Socialist injustice until the year of 2007 in the sum of 65 Billion Euro.

**III.** The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was a “modern answer” by Germany to the question of dealing with crimes against humanity, especially the forced work under the Nazi-regime, and to learn about history.

The Foundation was set up by law in 2000 as a result of three political dynamics. Firstly, a political will-formation process, which finally manifested itself in the Red-Green Federal Government Declaration in 1998 that it wished to establish “a Federal Foundation for former forced labourers with the involvement of German Companies”. Secondly, the growing pressure after 1989, particularly from Central European countries as well as from Jewish organisations, who raised the issue in particular of forced labour under the Nazis, which had been excluded over so many years from German compensation law. Finally, there were the legal proceedings brought in the USA against major German companies that used former forced labourers or had enriched themselves from victims of the Nazis.

The establishment of this Foundation, which at that time was funded with DM 10.1 billion – that is today 5.1 Billion Euro -, was “modern”, because it contained certain elements that may be referred as a more comprehensive “cultural achievement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I wish to specify just a few important aspects:

a) The creation of the Law brought in its wake a moralisation of politics which found its most visible expression in the public apology in December 1998 by the then Federal President Johannes Rau for the injustice Germany had inflicted on the forced labourers.

b) Representatives of the countries that suffered most under the Nazi regime and representatives of victim organisations also sit on the Foundation’s supervisory board.

c) In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preceding the law, the major provisions were contractually determined – who is eligible for payment, the financial distribution key for the countries and the victims as individuals.

d) The claims were not received, processed, decided upon and met by a *German* office, but by international Partner Organisations that were for the most part determined by the governments of the former “victim countries”. Our Foundation only had the function of monitoring that the Partner Organisations were applying the Law correctly. As a result of this joint action, which was finished in 2007, more than 1.66 million forced labourers or their legal successors received payments amounting to EUR 4.37 billion.

e) The political approach did not concentrate on questions of “historical guilt” but on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That also enabled people and companies to be involved in the consensus to whom justice could not be done through accusations of guilt on account of their age alone. Conversely, avoiding “accusations of guilt” strengthened peoples’ willingness to take responsibility, to open themselves up to the perspective and suffering of the victims and to encounters with the victims.

f) With the conclusion of payments in 2007 the Foundation did not aim to regard its work as complete. On the contrary. A constitutive part of the Law is the establishment of a Fund which on the one hand keeps alive permanently the memory of the injustice inflicted and of its victims – and does so consciously from the perspective of dialogue. The Foundation continues to promote international projects that aim to learn lessons from history for our coexistence in Europe today, to promot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to protect human and minority rights.

The Foundation has a long-term mandate to support international projects that promote cooperation in a spirit of partnership between Germany and those countries subjected to particular suffering under National Socialism. From the revenues generated by the original Foundation capital of EUR 358 million, the Foundation provides around EUR 8 million each year primarily for international programmes and projects in the following three focus areas:

- **The Foundation** supports projects that keep alive the memory and encourage young people to engage in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ast.
- It promotes international initiatives for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and human rights.
- It organizes humanitarian assistance for the surviving victims of National Socialism in partner countries.
- It supports projects that invite former forced labourers to visit Germany and encourages young people to explore the life histories of these persons.
- It promotes active commitment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while working to combat xenophobia, anti-Semitism and racism.
- It encourages international volunteer work in social and cultural projects undertaken by young people from Germany,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Israel. Through their active involvement, the young volunteers become more aware of social issues and acquir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and history of the host country.

With these programmes, the foundation underlines its further tasks to build bridges of remembrance and responsibility between the past and today’s challenges.

**IV.** My explanations were intended to show what Germany has done and also in part to reveal the “internal rationale” behind its actions. I am not advocating that other countries with their own

particular histories of injustice should tread just this path. Each country that bears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has to find its own honest look into the mirror of history. But it is also true that neglecting or refusing to come to terms with injustice will impede reconciliation between societies and countries for generations to come and may sow the seeds of new conflicts. That is the background to encourage Nations like Japan and Korea to find deeper ways of truth, historical awareness and reconciliation about the past.



*对国家社会主义者的恶行与对战犯的回顾、蒙难者赔偿、  
以及作为未来任务的民族间理解的增进*

Günter Saathoff

(German,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Foundation)

I. 1933年至1945年，在国家社会主义旗帜下犯下的罪行，如今我们仍不可理解。其中，最为惨无人道的罪行如下：

- 造成欧洲600万籍犹太人及50万辛提与罗马市民的死伤
- 导致6千万人死亡的二战这一征服战争的罪行
- 在本国被德国强行征召并遣送至德国的1200万外籍劳工，在德国政府机关与私营企业的各种恶劣的环境下的强制劳动

国家社会主义者政权如此的罪行，使德国自动从“文明国家的行列”中退出。在有过关于德国这个国家的尊严性的争议的1945年以后，德国与德国人民再也“不能瞻望人类文明的镜子”。1945年以后，回首过往的罪行，德国人应对以下问题做出回答，即我们到底做了什么？没有挽回的余地吗？是谁犯下的罪行？而且要牢记历史的记忆，以不让历史重演的决心建设新的未来，并且考虑如何补偿受害者。

我们应该记住德国没有自己从国家社会主义政权的灾难中解脱出来的能力。德国的解放来自其敌对势力在1945年取得的战争的胜利。（如1946-48年在东京所发生的一样）1945年与1946年的纽伦堡审判是因盟军占领德国而被解放的事实的结果。也是德国要清算历史不义的能力与意志的结果。

在这种背景下，德国为了重新“瞻望文明的镜子”而必须解决的，即为了尽“道德使命”与根植于历史的责任感，50年里一丝不苟的走过了复杂的历史、政治过程。从正义的观点看，这不

仅仅是关于金钱，而是有关道德的。

II. 话说回来，美国在冷战体制中需要一个作为伙伴的德国联邦共和国，所以，起诉纳粹分子等清算过去的意志在1940年代末迅速减弱。如果，纳粹分子在新的国家被录用，在德国民主共和国(GDR)起诉纳粹战犯的事情也将不能持续下去。

清算过去的过程，至今已进行了数十年。这意味着从想方设法为自己开脱的罪人与其追随者渐渐远去，并且除了亲历了过去事件的一代人以外，已经有过学术及政治性争论。

60年代末，战争罪犯与他们的子女之间产生了矛盾，并且在西德成为了公开讨论作为战犯的父母亲的所作所为（即在希特勒统治下的德国（第三帝国）的时候）的契机。战争的记忆逐渐远去以后，德国社会才开始寻找足以面对恐惧的力量。因此在初期，这种争论受限于要求子女与父母断绝关系并自省的声音而没有获得什么进展。

这样的现象后来逐渐发生了变化。80年代开始，这样的争论开始演变为清算反人类的大屠杀与罪行的综合性的解决方式。产生这种变化的最重要的原因是对罪犯的刑事处罚与受害者的送还及赔偿要求，还有作为加害者的社会与共谋者的自我反省。

在德国，清算纳粹罪行的过程是一个持续的文化、政治成熟的过程。从国际视角来看，1989年有过历史性中断。‘冷战’的重要性使德国拒绝了经历纳粹暴行的中欧及东欧国家的要求。前苏联的瓦解及1989年冷战结束以后，同样的要求不可能再被拒绝或忽视。

过去50年里，德国为纳粹政权的受害者制定了“补偿”与“还原”为目的的新的法案与金融解决方法。从1949年到2007年，德国向国家社会主义者罪行的受害者及其后代共支付了650亿欧元。

III. “记忆、责任和未来”财团是德国对反人类罪行-尤其是在纳粹政权下的强制劳役-相关问题的“现代性答复”，并且是要重新学习历史的尝试。

本财团经历了3种政治性变化，依法创立于2000年。第一，政治信念形成阶段。是因希望创建“关于德国公司参与的强制劳役的联邦基金会”的1998年红绿联邦政府宣言而具体化的。第二，1998年以后压力加强的时期。这种压力来自于突出体现德国赔偿法案里长期被忽视的纳粹强制劳工议题的重要性的中欧国家及犹太人团体。最后的变化是在美国发生的针对使用强制劳役或从纳粹政权的受害者获取利益的德国主要公司的法律诉讼。

获得了相当于今天51万亿欧元的101亿马克而创立的本基金会，包括了堪称更为复杂的清算过去的文化成就的因素，所以可称之为“现代性”。本人想阐明下几个重要的观点：

- a) 此法律是在政治的道德化过程中制定的。这种变化是因为当时的联邦总统约翰内斯·劳 (Johannes Rau), 向被强制奴役者就德国的犯罪行为在 1998 年 12 月进行公开道歉而成为事实的。

- b) 本基金会的监事，包括在纳粹政权下遭受迫害的国家的代表及受害者团体的代表。
- c) 在法律制定前的国际协商中，为了向国家与个人受害者进行经济赔偿，作为最重要的一环，即关于赔偿对象的主要条款已经以契约方式被决定。
- d) 赔偿要求的受理、处理、决定并执行，不在德国办事处进行，而在可由“受害国家”多数决定的国际合作团体来进行。本基金会只监督合作团体是否依法操作。作为 2007 年结束的此项合作的结果，166 万前纳粹强制劳工及他们的合法继承人收到了 43.7 亿欧元的赔偿金。
- e) 从政治性的角度来说，比起“历史负罪意识”，而更着重于“对受害者的赔偿”。这对国民与企业形成仅仅谴责当事人是不能实现正义的共识起到了作用。历史上，对‘罪行的谴责’起到了提高国民的责任意识，理解受害者的痛苦与观点起到了作用。
- f) 2007 年赔偿金支付结束并不意味着本基金会使命的结束。作为法律部分之一的确保资源，在某种程度上是为了使关于罪行与受害者的记忆永远持续而进行的有意识性的对话。本基金会鼓励为了我们如今在欧洲的共存，而得到历史教训为目标的国际性项目，促进国际间的理解、保护人权及少数民族权利。

本基金会具有长期资助谋求德国与国家社会主义下遭受迫害的国家之间的伙伴合作关系的国际性项目的任务。基金会初期资本为 3.58 亿欧元，每年可产生 8 百万欧元的经济收益，这笔收益将资助与以下 4 个重点领域及相关国际计划和项目：

- 本基金会资助促进年轻人反思过去的项目。
- 本基金会资助谋求民族间的相互理解与促进人权的国际性项目。
- 本基金会对于伙伴国家的国家社会主义受害者进行人道主义援助。
- 本基金会为了能让年轻人亲身体验历史，而资助他们邀请强制劳工访问德国的项目。
- 本基金会在促进民主与人权方面做出贡献的同时，积极开展面向排斥外国人、反犹太主义和种族歧视的斗争。
- 本基金会鼓励来自德国、中欧、东欧和以色列的国际青年志愿者机构在社会和文化领域的国际志愿者项目。通过青年志愿者的积极参与能让他们认识到社会问题，并且加深对东道国文化和历史的理解。

本基金会希望通过上述在过去与现实的挑战之间建立反思与责任的桥梁的计划表现未来的课题。

IV. 本人的说明是为了介绍至今德国采取了什么样的措施，并且以指明这种措施的“隐藏的逻

辑”为目的。本人并不是主张具有自己特有的犯罪历史的其他国家必须要依照这种方法。具有侵犯人权责任的国家应该摸索各自的在面对赔偿受害者与受害者人权的同时，可以在历史的镜子中率直示人的独有的方法。拒绝与无视清算罪行，只会妨碍未来一代人的社会及国家间的和解并引起新的争端。这就是为什么像日本与韩国这样的国家应该加深对历史真相的了解及认识，寻求对过去历史的和解。

**国家社会主義者たちの卑行と戦犯たちに対する回想、**

**被害者保障、そして未来課題としての民族間理解増進**

Günter Saathoff

(German,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Foundation)

I. 1933年から 1945年の間、国家社会主義下で犯された犯罪を、私たちが今日、理解するのはほとんど不可能なことである。その中でも最も無慈悲な犯罪は以下のとおりだ。

-ヨーロッパ系ユダヤ人 6百万人及びシンティーとローマ市民 50万人殺傷

-6千万人にのぼる死を招来した世界 2次大戦のような征服戦争に対する責任

-故国から追い出された 1千2百万の人々が、政府機関と私企業でたびたび惨憺たる環境の中で強制労役に動員されたドイツへの強制移送

国家社会主義者政権のこのような犯罪によって、ドイツは “文明化された国々の大列” から自らを排除させることとなった。ドイツという国家の尊厳性に対する論争のあった 1945年以後にドイツとドイツの国民は、これ以上人類文明の “鏡を眺め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 1945年以後、犯罪の鏡をのぞき見ながらドイツ人が応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質問は、以下のとおりだ： 私たちは一体、何をしでかしたのか？ 取り戻す方法はないのか？ 誰が犯した犯罪なのか？ そして質問は続く。記憶をおさめて “二度と繰り返はしない” という決意で新しい未来を建設しながら、犠牲者たちに報いることは何か？

私たちはドイツは、国家社会主義政権の災いから自ら脱することができる能力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記憶しなければならない。ドイツは 1945年の戦争を勝利に導いた反対勢力によって、解放を得たのだ。(1946-48年東京であったのと同じような) 1945年と 1946年のニュ

ルンベルク戦犯裁判は、連合軍によってドイツが占領されて解放されたという事実の結果として成り立ったのだ。そしてドイツが歴史的な不義を清算することができる能力と意志の結果でもある。

このような背景で、ドイツは再び “文明の鏡をのぞき見るため” 必ず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道徳的使命” と、歴史の中に根づいた責任感を果たすために、ドイツは 50年間にきちんきちんと複雑な歴史的、政治的過程を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して正義の観点からこれは、ただ金銭ではなく道徳性に関するものであった。

II. 逆に言えば、アメリカが冷戦体制でのパートナーとしてドイツ連邦共和国を必要としたため、ナチ党を起訴するなどの過去の出来事に対する清算意志が、1940年代末から既に急激に減少していた。もし、ナチ党たちが新しい国で任用されたら、ドイツ民主共和国 (GDR) でナチの戦犯を起訴する事も持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る。

過去を清算する過程は、今日に至るまで過去数十年間進行されて来た。これは自らを正当化する犯罪者たちと、その追従者たちからますます遠ざけて、問題となっている事件を経験した世代を除いて、学問的・政治的論争が成り立ったということの意味する。

60年代末の犯罪者たちと彼らの子女の間に世代間の葛藤が生じ、西ドイツではヒトラー治下のドイツ (the Third Reich) 下で、親たちが行った行動に対して公開討論をするきっかけになった。戦争の現実からある程度遠のいてはじめて、ドイツ社会は漸進的に “恐怖を直面することができる” 力を捜し始めたのだ。したがって、初期にはこのような論争が子女世代に対する自己規定と親世代との断絶に対する主張によって進展しなかった。

このような様相は、後に変化し始めた。80年代からは、このような論争は人類に反する大虐殺と犯罪を清算する総合的な処理方式の形態を帯び始めた。このような変化の最も重要な要素は、犯罪者の刑事的処罰と犠牲者たち、そして彼らの返還及び補償要求、そして原因を提供した社会と共謀者たちによる自体糾明である。

ドイツでナチの犯行を清算する過程はまだ終わっていない文化的、政治的成熟の過程だ。国際的視覚から見れば、1989年歴史的な制動を経験した。 ‘冷戦’ の重要性がドイツをしてナチ蛮行に関する中央及び東部ヨーロッパの国々からの要求を拒絶させたのだ。旧ソ連支配の崩壊と、1989年以後の冷戦の終息以後、同一の要求がこれ以上拒絶されたり無視されること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驚くべきことではない。

去る 50年間、ドイツはナチ政権の被害者たちのための “補償” と “還元” のために、新しい法案と金融的解法が用意された。1949年以後、2007年までドイツは国家社会主義者たちの犯行による被害者と彼らの相続人たちに総 650億ユーロ を支払った。

III. “記憶、責任、そして未来” 財団は、人類に逆う犯罪たち- 特にナチ政権下での強制労働- に係わる問題点に対するドイツの “現代的返答” であり、歴史を学ぼうという試みである。

本財団は三種の政治的变化として、2000年度に法によって創立された。一番目は政治的意志-形成段階として “ドイツの会社が関与した強制労働者たちのための連邦財団” 創設を希望する 1998年の赤緑連邦政府宣言によって遂に具体化した。二番目は、1998年以後の圧力が強まる時期だ。このような圧力は、特にドイツ補償法案から長い間排除されたナチ下の強制労働イシューの重要性を浮上させた中央ヨーロッパ国家及びユダヤ人団体たちによって加えられた。最後に強制労働者たちを利用したり、ナチ政権の被害者たちから利益を取ったドイツ主要事業者らを対象にアメリカで進行された法律手続きである。

今日の 51億万ユーロにあたる 101億マルクの支援を受けて創立された本財団は、より複合的な過去清算の文化的達成と呼ばれるにふさわしい要素を含んでいるので “現代的” といえることができる。本人は何種の重要な観点を言及しようと思う：

- a) 本法律は、政治の道徳化過程で制定され、このような変化は、当時連邦大統領であったヨハンネスラウが強制労働者たちにドイツが行った犯罪行為に対して 1998年 12月公開的に謝罪することで可視化された。
- b) ナチ政権下で、最も多くの苦痛を受けた国家の代表たちと、被害者団体の代表たちが財団の監事に含まれた。
- c) 法律制定以前の国際交渉で、国家や個人被害者たちに金銭的補償をするために最も重要な鍵である補償対象に対する主要条項が既に契約形態として定まった。
- d) 補償要求の受付、処理、決定及び履行をドイツ事務室で進行しないで “被害国家” 政府によって大部分が定められる国際パートナー団体によって成り立つ。私たち財団はパートナー団体が法律を適法に適用するかを監視するだけである。2007年度に終決されたこの協力事業の結果として、166万人以上の強制労働者及び彼らの法的相続人たちが 43億7千万ユーロに達する補償金を支払われた。
- e) 政治的な接近は “歴史的な罪意識” に焦点を合わせるより “被害者に対する補償” により重きを置いた。これは国民と企業らが犯罪を犯した当事者たちだけを責めることでは正義が実現しないと共感することに寄与した。逆説的に “犯罪の非難” は国民の責任意識を鼓吹し、犠牲者たちの苦痛と観点に対して心を開いて犠牲者とともに共感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れた。

f) 2007年補償金支給の完了とともに、本財団の役割が終わったのではない。法律部分のうちの一つの資源の確保は、一方では犯行及び犠牲者たちに対する記憶が永久的に持続するように意図的な対話を交わすことだ。本財団は今日、ヨーロッパで私たちが共存するための歴史の教訓を得ることを目標にする国際的なプロジェクトを奨励し、国際的な理解及び人権及び少数民族の権利保護を促進する。

本財団はドイツと国家社会主義下で苦痛を受けた国々の間に、パートナーシップの協力関係を図る国際的なプロジェクトを支援する長期的任務を持っている。財団初期資本である 3億5千8百万ユーロによって生ずる収益で、毎年約 8百万ユーロを次の 4種の重点分野と関連した国際プログラム及びプロジェクトに支援する：

- ・本財団は過去の記憶を蘇らせて、若者達が過去を批判的に見られるように奨励するプロジェクトを支援する。

- ・本財団は民族間の理解と人権を図る国際的な代案を支援する。

- ・本財団はパートナー国家にある国家社会主義の生存被害者たちのための人道的支援をする。

- ・本財団は若者たちが、彼らの生きた歴史を探求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強制労役者たちがドイツを訪問するように招待するプロジェクトを支援する。

- ・本財団は民主主義と人権のための積極的献身を促進すると同時に、外国人嫌悪症、反ユダヤ主義、人種差別と対立して闘う。

- ・本財団はドイツ、中央及び東ヨーロッパ、そしてイスラエルの青年たちによって進行される社会、文化分野の国際ボランティア活動を奨励する。このような積極的参加を通じて若いボランティアたちは、社会的な問題を認識するようになり行事を主管する国家の歴史と文化についてより深く理解するようになる。

本財団は、このようなプログラムで過去と現在の挑戦の間に、記憶と責任の橋を建設する今後の課題を表出しようとする。

IV. 本人の説明は、その間ドイツがどのような措置を取ったのかを示し、部分的にはこのような措置の “隠された論理” 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目的がある。本人は彼ら特有の犯罪の歴史を持っている他の国々が、必ずこのような道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するのではない。人権侵害の責任のあるそれぞれの国家は、被害補償と被害者の人権に対処して、歴史の鏡の中に率直な姿を投映することができる彼ら固有の方法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犯罪を清算することを拒否したり無視することは、今後、未来世代の社会及び国家和解を阻害して新しい紛争の種子を振り撒くことだということも厳然たる事実である。これがまさに日本と韓国のような国家がもう少し深みのある真実と歴史認識、そして過去に対する和解を模索することを奨励する理由である。



## 대만 원주민 여성으로서 전쟁의 기억과 역사인식

카오진 쑤메이

(대만, 대만원주민 민속공연단 대표, 입법의원)

그림 속에 화환을 걸고있는 남자는 대만 타이둥(台東)의 아미족(阿美族)인 이광휘(李光輝, 민족명:스니왕/史尼旺, 일본명: 나카무라 데루오/中村輝夫)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대만 원주민을 모집한 다카사고의용대(高砂義勇隊)원으로 인도네시아 모로타이섬(摩羅泰島)의 전쟁터에 나섰다. 1944년 말 그는 연합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깊은 산속에 들어가 30년 동안 바깥세상과 단절되는 야인(野人)의 생활을 했었다. 1974년 말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를 발견했고 우여곡절끝에 대만으로 돌려보냈다. 이광휘(李光輝)가 나타남으로써 대만사회에게 잊혀졌던 과거의 전쟁역사, 특히 다카사고의용대(高砂義勇隊)의 역사가 또다시 주목을 받았으나 오래 받지 못했다.

이사진은 「야스쿠니신사합사취하」 소송의 대만 원고인 양원황(楊元煌)씨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의 가족사진이다. 사진 속에 있는 그의 집안 어른신이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국기를 손에 들고 전쟁터에 나서고 있다. 이사진은 양원황(楊元煌)씨가 집안 어른신들로부터 전해 들은 전쟁에 관한 전부였다.

이것은 대만 화련(花蓮) 수림향(秀林鄉) 수원부락(水源部落)에 있는 한 산속의 동굴이다. 이 지역의 현지 노인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시대에 여기는 일본군인의 위안소(慰安所)였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서 아무 표시도 없고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1935년에 발생한 무사(霧社) 사건은 50년 일제 통치시대 가장 처참했던 원주민 무장 반 식민 통치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의 지도자는 태아족(泰雅族)의 영웅인 모나루도(莫

那魯道)였다. 1953년 대만정부가 무사(霧社)사건의 발생지 근처에 기념 공원 하나를 조성했으며 이 공원은 대만에서 많지 않은 전쟁역사 기념공원이며 규모가 크지 않고 역사적인 설명문도 많지 않다.

사실상 대만정부가 대만의 피 식민화의 역사 특히 원주민 역사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았다. 원주민의 후대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 심지어 가까운 과거 60년의 전쟁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집안어르신들이 알리기 꺼려했고 교과서에서도 안 나왔고 대만 사회는 이에 대해 아주 무관심했다.

2002년 내가 대만 입법위원이 당선되고 나서야 우리 민족의 비참한 역사를 알았고 그때부터 일련의 ‘역사를 부락에게 돌려보내자-부락의 역사찾아주기-’(送歷史回部落송역사회부락)는 활동을 시작했다.

‘민족역사의 진상을 규명하자’(還原民族歷史)라는 활동은 나의 정치 문정(問政)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활동 중의 하나였다.

일본군국주의가 대만을 침략하는 첫 전쟁의 대상은 바로 원주민 부락이었다. 1874년 일본군은 표류한 류큐(琉球) 선원이 대만 목단사(牡丹社)배만족(排灣族)원주민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빌미로 출병해 대만 원주민 마을을 공격했다. 또한 그 당시 수많은 인류학자들을 대만으로 파견해서 대만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으며 그 조사를 통해서 대만이 아주 풍부한 장뇌(樟腦) 및 산림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 풍부한 자원들은 대부분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이 정식으로 대만을 점령한 후 바로 ‘번인(蕃人)와 번지(蕃地)를 완전히 소탕하자’(全然消滅蕃人蕃地)는 리번(理蕃)정책을 선포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번지(蕃地)-일본인이 대만의 원주민 거주지역을 부르던 명칭)는 국유지이다’라는 법령을 반포했다. 일본의 식민정부는 무력으로 토벌해서 원주민의 토지를 점령했고 애용선(隘勇線: 경계선)을 설치해서 원주민의 활동범위를 제한했으며 이를 통해서 장뇌(樟腦) 제조 사업을 순조롭게 했다.

이는 일제 통치 시대 일본군이 배만족(排灣族)부락, 노개족(魯凱族)부락을 참략한 목표이다.

일본군들은 아미족(阿美族), 뿌농족(布農族), 추족(鄒族)을 토벌하였으며, 태아족(泰雅族), 새덕극족(賽德克族), 태로각족(太魯閣族), 새하족(賽夏族)을 짓밟았다.

일본 식민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일제 통치의 25년간 원주민부락을 138차례 토벌했고 사망자가 7080명, 부상자가 4123명, 몰수한 총이 29358개였다. 1920년 원주민의 총인구 13만 여명을 기준으로 보면 1,1000여명의 사상자수가 인구의 1/12에 달하는 수치였다. 일본군은 ‘삼광정책’(三光政策: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빼앗아라)으로 원주민 부락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제번’(以蕃制蕃)의 계략으로 원주민들을 분열시켰다. 두목의 머리를 베면 돈200, 장정(壯丁)의 머리를 베면 돈100, 부녀의 머리를 베면 돈30, 아동의 머리를 베면 돈20을 주는 장려금 방식으로 원주민들이 서로를 해치게 만들었다.

일본식민정부는 무력 이외에 교육을 통해서 원주민을 탄압했다. 일본식민정부는 원주민 지역에서 ‘번동교육소’(蕃童教育所-원주민 어린이 교육소-)를 많이 세웠으며 교육소의 교육은 주로 일본어 배우기였다. 일본식민정부는 이를 통해서 원주민 아이들이 자기 민족의 전통문화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41년 말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의 병력이 부족해서 번동화(蕃童化) 세뇌교육을 받고 자란 원주민 아이들이 ‘고사의용대’(高砂義勇隊)로 편성돼 전쟁에 참가했다. 윗 세대가 일본 군대에게 살육을 겪고 그 다음세대인 세뇌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는 남양에 보내져 전쟁터에서 총알받이로 목숨을 잃었다. 그야말로 두 세대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것이다.

소위 ‘고사의용대’(高砂義勇隊)는 군대가 아니라 ‘군 인부’(軍伕)이다. 군 인부가 하는 일은 일본군의 잡다한 업무를 보는 것이다. 전쟁 말기 일본은 병력이 점점 더 부족해져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고사의용대를 제 일선에 보내 싸우게 했다.

당시 원주민 인구에서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16만 명이였다. 학자의 추정에 따르면 고사의용대는 약1만 명이고 그 중 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 돌아온 사람은 반도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중상이었다. 또한 가미카제 특공대(神風特攻隊)와 비슷한 ‘훈공정대’(薰空挺隊)가 모두 전사했다.

원주민부락에서 남편이 ‘고사의용대’(高砂義勇隊)로 편성되고 아내가 사기당해 위안부가 되는 가정이 많았다. 그리고 사기당한 원주민 여성들이 부락에 다시 돌아갔어도 자신의 불행을 감히 말하지 못했으니 원주민위안부의 피해상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일부 ‘고사의용대’(高砂義勇隊)가 생환했지만 대부분 심한 중상을 입었고, 또 일부 ‘고사의용대’(高砂義勇隊)는 완전히 소식이 없었다가 20년후에 가족에게서 야스쿠니신사로부터 합사통지서를 받았다. 심지어 일부 ‘고사의용대’(高砂義勇隊)는 생사

확인조차 안되고 가족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지난 6년간 일본군국주의와 아스쿠니 신사를 규탄할 때 대만 원주민은 줄곧 한국, 오키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친구들과 연대했다.

우리 모두 단결하여 역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식민과 침략 반대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Remembrance of War and History through the Eyes of Native Taiwanese**

Kaochin Sumei

(Taiwan, Legislator, & President of “Feijuyuenbao Synectics”)

The man wearing a string of flowers around his neck is a man named Lee Kwang-Hui, an Ami villager from Taidong in Taiwan (whose ethnic name is Sniwang and Japanese name is Nakamura Deruo). He was recruited for Dakasago voluntary army by the Japanese Army and fought in the battle field of Moratai Island of Indonesia during World War II. At the end of 1944, he went into the deep forest to hide from fierce attack of Allies and lived there for 30 years isolated from the outside world. At the end of 1947, the Indonesian government found him and returned him back to Taiwan after many complications. With the appearance of Lee Kwangh-Hui, the long-forgotten history of past war, especially the history of Dakasago voluntary army, came into spotlight once again, though it did not last very long.

This picture is retrieved from family photos kept by Yang Won-Hwang who is a Taiwanese plaintiff of a lawsuit for the “Withdrawal of Yasukuni Enshrinement”. In this picture an elderly man in Japanese military uniform is going for the battle field with a Japanese flag in his hand. This is the only story about the war passed down from the ancestries of Yang Won-Hwang.

This cave is located in a forest of Suwon village, Surimhayng, Wharyeon, Taiwan. According to the testimony of a local elderly man, this place used to be a comfort station of the Japanese Army. No signs or traces about the past history, however, can be found in this area.

The incident of Musa in 1935 is remembered as one of the most tragic anti-colonial armed conflicts of native Taiwanese during the 50 years of Japanese ruling. The leader of this incident was Monaruto, a hero of Taeah village. In 1953, the Taiwanese government created a small memorial park with little historical information near the location of Musa incident, which is one of the few war memorial parks in Taiwan.

In fact the Taiwanes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enough education about bloody colonization, particularly about the history of native people. Not to mention their own ethnic history, the native people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the war history of last 60 years. This is due to multiple reasons; their ancestries were hesitant to let others know, the textbooks do not cover the subject, and the Taiwanese society has been indifferent to the matter.

I became aware of the tragic history of our people when I was elected as a member of the legislature in 2002; since then, I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a series of actions with regard to recovering the history of villages (Songyeok village).

“Searching for the truth of ethnic history” has bee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re agendas throughout my political life.

The first target of Japanese Imperialism in Taiwan was the native villages. The Japanese Army began to attack native villages for the killing of a castaway Japanese shipman by native people of Mokdansa Baeman Village. Also the Japanese government sent many anthropologists to Taiwan for through investigations and found out that Taiwan had plentiful camphor and forest resources. Yet, they soon realized that those valuable resources were abundant in the areas where native people resided. The Japanese government, therefore, declared a Ribun policy calling for ‘elimination of Bun-In and Bun-Ji’ (meaning native people and their habitats, respectfully) and a law claiming that Japan owned every Bun-Ji. The imperial government of Japan seized all lands of native people by forcefully suppressing them. Japanese then built boundaries to limit native people’s sphere of activity so that they could produce camphor more easily.

This is primary why the Japanese Army attacked Baeman tribe and Nogae trib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Army liquidated Ami tribe, Punong tribe, Chu tribe and put down Taea tribe, Saedukguk tribe, Taerogak tribe and Saeha tribe.

According to Japanese colonial government’s statistics, the Japanese Army attacked native villages 138 times resulting in 7080 deaths and 4123 wounded and confiscated 29358 guns during its 25 years of ruling.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total population of native people was 130 thousand in 1920, the total number of casualties accounted for 1/12 of its population. The Japanese Army suppressed native tribes by implementing so called ‘Samgwang Policy’ (meaning kill everyone, burn everything, and seize everything) and disrupted them through ‘Ibunjebun’ strategy. This strategy lured native people to harm each other by paying 200 Don for killing a leader, 100 Don for a male adult, 30 Don for a female adult, and 20 Don for a child.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lso oppressed the native people by means of education in addition to military power. The government established many 'Bundong Education Center' (An education center for native children) in native villages in which Japanese languages was primarily taught. The ultimate goal of education was to seduce the native children to forget traditional culture and history of their people.

At the end of 1941, Japan started the Pacific War. Due to the shortage of Japanese military force, the native children, brainwashed by Budongwha education, were organized into Gosa voluntary army. The parent generation was murdered by the Japanese Army whereas the following generation was sent to Namyang and taken away lives on the battle fields as bullet baits. Two generations were literally wiped out.

In fact, so called 'Gosa voluntary army' was not an army; it was as 'army servant.' Their duty was to take care of miscellaneous affairs of the Japanese Army. At the end of war, however, this inexperienced and untrained Goas voluntary army had to fight in the battlefields because of increasing shortage of Japanese military force.

The total population of native people at that time was 160 thousand. According to scholars, the number of Gosa voluntary army was about 10 thousand; more than half was killed and most survivors were severely wounded. Furthermore, every soldier of 'Hungongjung Unit'- a resemblance of Kamikaze special unit- died in battle.

It was common among households in native villages that husbands were forced to join 'Gosa voluntary army' while their wives were lured to become military comfort women. A lot of damages done to these women were unknown because they could not tell their horrible experiences as military sexual slaves. After the war, some soldiers of 'Gosa voluntary army' returned home alive, but most of them were seriously wounded. After 20 years, families of 'Gosa voluntary army' received notifications from Yasukuni shrine that the dead soldiers were enshrined together at Yasukuni shrine. The fates of some missing 'Gosa voluntary army' are still unknown to their families.

For the last 6 years, Taiwanese native people have continually worked with Koreans and peace loving Japanese friends to demonstrate against Japanese militarism and Yasukuni shrine.

Let us all work together to investigate the truths of history and fight against colonialism and aggression.

Thank you.

## 台灣原住民眼中的戰爭記憶和歷史

Kaochin Sumei

(Taiwan, Legislator, & President of “Feijuyuenbao Synectics”)

圖片中帶著花圈的男子，是台灣的原住民，台東阿美族人，名叫李光輝（民族名史尼旺，日本名中村輝夫）。

二次世界大戰的時候，他被日本殖民政府徵召當了高砂義勇隊，送到印尼摩羅泰島打仗。1944年底，為躲避盟軍的攻擊，他躲進叢林裡，此後獨自生活了30年，過著野人般的生活，完全與外界隔絕。1974年底，印尼政府發現了李光輝，輾轉的把他送回台灣。

因為李光輝的出現，這段幾乎已經被台灣社會遺忘的戰爭歷史，尤其是高砂義勇隊的歷史，才又重新獲得關注，但時間非常短暫。

這是「合祀除名」訴訟的台灣原告楊元煌，所收藏的家庭私人照片。家中的先輩穿上日本軍裝、手拿日本國旗上了戰場。但是，除了這些照片，楊元煌並沒有從家中的長輩口中，知道更多有關戰爭的情況。

這張圖是位於台灣花蓮秀林鄉水源部落一處荒廢的山洞，根據當地老人指證，在日據時代，這裡是日本軍人的慰安所。

但現在這裡沒有任何標示，過去的歷史也如現場的漫草一樣被掩埋。

發生在1935年的霧社事件，是日本殖民台灣50年期間，最為慘烈的原住民武裝反抗殖民統治事件，領導者是泰雅族的英雄莫那魯道。1953年，台灣政府在霧社事件的發生地附近，建了一個紀念公園。

這是台灣少數的有關戰爭歷史的紀念公園，規模不是很大，現場也沒有更多的歷史說明。

事實上，台灣政府對於台灣的被殖民史，尤其是有關原住民的歷史，並沒有太多的教育。

原住民的後代對於自己民族的歷史，甚至只是過去六十多年的戰爭歷史，知道的很少，家中長



輩不願意說，課本沒有教，社會上也不關心。

2002年，在我當選立法委員之後，我才開始了解到自己民族慘痛的歷史，於是開始進行一系列「送歷史回部落」的活動。

「還原民族歷史」可以說是我的問政活動最重要的主軸之一。

日本軍國主義對台灣的第一場戰爭，就是攻打原住民部落。1874年，日本軍隊藉口琉球漂民被牡丹社排灣族原住民殺害，而派兵攻打。

當時的日本政府派遣了很多人類學家到台灣來調查。

他們發現台灣有豐富的樟腦、木材等物產資源，而這些資源都生長在原住民生活的地區。

所以，當日本正式佔領台灣後，便立即公佈「全然消滅蕃人蕃地」的理蕃政策，並頒布法令，令所有蕃地為國有地。

接著，就展開一連串的武力討伐行動，佔領原住民的土地，設置隘勇線限制原住民的活動範圍，用國家武力來保護製造樟腦的事業。

這是日本統治台灣期間，日軍入侵排灣族、魯凱族部落的戰役。

日軍討伐阿美族、布農族、鄒族的戰役。

日軍討伐泰雅族、賽德克族、太魯閣族、賽夏族的戰役。

根據日本殖民政府的統計，在統治的前25年的時間，總共討伐原住民部落138次，殺死7080人，傷4123人，收繳槍枝29358枝。若以1920年原住民的人口13萬多人來計算，死傷的1萬1千多人，相當於人口的12分之一。

日本軍隊使用「三光政策」——殺光、燒光、搶光，來對付原住民部落。

更可惡的是，日軍使用「以蕃制蕃」的計謀，來分化原住民，還用獎金的方式，獵下頭目的頭200、壯丁100、婦女30、兒童20，鼓勵原住民自相殘殺。

除了武力，日本殖民政府還用教育的方式，來消滅原住民。

殖民政府在原住民地區，廣設蕃童教育所，教學內容主要是學日語，教學的目的只是馴化和洗腦，讓原住民小孩混淆自己的民族認同，忘記自己民族的歷史。

1941年底，日本引爆太平洋戰爭，兵源極度缺乏。於是，接受蕃童化教育長大的原住民小孩，被編成「高砂義勇隊」參加戰爭。

上一代遭受到日本軍隊的殺戮，下一代接受洗腦教育長大的小孩，竟然還被送到南洋當戰爭砲灰，這完全是兩代滅族行為。

所謂的「高砂義勇隊」並不是什麼軍隊，而是軍伕。軍伕做的是給日本軍人打雜的工作。戰爭末期，日軍的兵力越來越吃緊，於是就把沒有受過太多軍事訓練的高砂義勇隊推上第一線打仗。

當時，原住民人口，男女老少通通加起來約16萬人。根據學者估計，高砂義勇隊約有一萬人，這其中有一半以上死亡，活著回來的不到1/2。另外，類似神風特攻隊的「薰空挺隊」，則全

部戰死。

在原住民部落，有許多家庭是丈夫被送去當高砂義勇隊，妻子被騙去當慰安婦。

受騙的原住民婦女回到部落後，大多不敢講出自己的遭遇，所以原住民慰安婦的受害情況，外界知道的很少。

戰爭結束後，有的高砂義勇隊幸運的生還，但許多已經成為重殘者。

有的則完全沒有音訊，家屬在20多年後，才收到一張來自靖國神社的合祀通知書。

有的家屬甚至什麼都沒有，對於親人如何戰死的情況，完全一無所知。

過去六年來，控訴日本軍國主義和靖國神社的行動，台灣原住民一直是與韓國、琉球以及日本愛好和平的朋友們一起並肩而行。

讓我們繼續團結在一起，共同為找回歷史真相、反對戰爭、反對殖民而努力。

謝謝！

## 台湾原住民の目で見た戦争の記憶及び歴史

Kaochin Sumei

(Taiwan, Legislator, & President of “Feijuyuenbao Synectics”)

絵の中に花輪をかけている男の人は、台湾の台東の阿美族(アミ族)である李光輝(リコウキ、民族名：スニワン/史尼旺、日本名：ナカムラテルオ/中村輝夫)である。彼は第2次世界大戦の当時、日本軍が台湾原住民を募集して作った高砂義勇隊の部員としてインドネシアのモロタイ島(摩羅泰島)の戦地に出た。1944年の末、彼は連合軍の攻撃を避けるために深い山奥に入り、30年の間世間と断絶された野人としての生活をしてきた。1974年末、インドネシア政府が彼を発見し、紆余曲折を経て台湾に帰らせた。李光輝が現れることによって今まで台湾社会に忘れてきた過去の戦争歴史、特に、高砂義勇隊の歴史は再び注目を引いたが、長く続くことはできなかった。

この写真は「靖国神社合祀取下げ」訴訟の台湾原告側である楊元煌(ヤンウォンファン)さんが保管している個人の家族写真である。写真の中にいる彼の家門のお年寄り(お爺さん)は日本軍服を着て、日本国旗をお手に持って戦地に向かっている。この写真が楊元煌さんが家のお年寄りから伝え聞いた戦争に関する全部であった。

これは台湾の花蓮(カレン)の秀林郷(シュウリンキョウ)の水源部落にある、或る山奥の洞窟である。この地域の現地のお年寄りの証言によると、この洞窟は日帝時代の時日本軍人の慰安所であったそうだ。ところが、現在この地域では何の表示もなく、過去の歴史についても何らかの痕跡を探すこともできない。

1935年に発生した霧社(ムシャ)事件は、50年の日帝統治時代の中でもっとも凄惨だった原住民の武装反植民統治事件であった。この事件のリーダーは泰雅族(タイヤル族)の英雄である莫那魯道(モーナ・ルーダオ)だった。1953年台湾政府は霧社事件の発生地(霧社)の近くに記念公園を一個造成したが、この公園は台湾であまり多くない戦争歴史の記念公園としてその規模は大きくないし、歴史的な説明文も十分ではない。

事実上、台湾政府は台湾の血で染められた植民化の歴史、とりわけ原住民の歴史に関する教育をあまりさせなかった。原住民の子孫たちは自分の民族、甚だしくは去る過去の60年の戦争歴史に対してもよく知らないのである。その理由は家のお年寄りたちが後代にかけて知らせるのを憚っていたし、教科書にも出ていたかった等、台湾社会はこのような状況に対してとても無頓着であった。

2002年私は台湾の立法議員に当選されて初めて我が民族の惨めな歴史を知り、その時から一連の、‘歴史を部落に取り戻そう一部落の歴史取り戻し’（送歴史回部落）という活動を始めた。

‘民族歴史の真相を糾明しよう’（還原民族歴史）という活動は、私の政治活動の中で一番重要な核心活動の一つであった。

日本軍国主義が台湾を侵略する時、初戦争の対象にしたのはまさに原住民の部落であった。1874年日本軍は漂流していた琉球の船員が台湾の牡丹社(ボタンシャ)の排灣族(パイワン族)の原住民に殺害された事件を引金に、出兵して台湾の原住民村を攻撃した。また、その当時、数多い人類学者を台湾に派遣させ台湾に対し徹底的に調査し、その調査を通じて台湾に非常に豊かな樟脳及び山林資源などが保有され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しかし、この豊富な資源は殆ど原住民が居住している山で育てていたため、日本は正式に台湾を占領した後早々に‘蕃人と蕃地を完全に掃討しよう’（全然消滅蕃人蕃地）という理蕃製作(リバンセイサク)を宣布した。それだけではなく、‘全ての番地(番地-日本人が台湾の原住民の居住地域を呼ぶ名称)は国有地である’という法令を頒布した。日本の植民政府は原住民を武力で討伐して、彼らの土地を占領し、隘勇線(アイユウセン:警戒線)を設置する等、原住民の活動範囲を制限しながらこれを通じ樟脳の製造事業を順調に捗るようにした。

これが日帝統治時代、日本軍が排灣族(パイワン族)部落、魯凱族(ルカイ族)部落を侵略した目標であった。

日本軍は阿美族(アミ族)、布農族(ブヌン族)、鄒族(Tsou族)を討伐し、泰雅族(タイヤル族)、賽德克族(セデック族)、太魯閣族(タロコ族)、賽夏族(サイシャット族)を踏み付けた。

日本の植民政府の統計によると、日帝統治の25年の間、原住民部落を138回討伐し、死亡者は7,080人、負傷者は4,123人、没収した鉄砲は29,358個であったという。1920年原住民の総人口の13万余りを基準で判断すると、1,1000人余りの死傷者の数は人口の1/12にも達する数値であった。日本軍は三光政策(サンコウセイサク:全て殺せ、全て燃やせ、全て奪いとれ)で原住民の部落を弾圧しただけではなく、以蕃制蕃の計略で原住民を分裂させた。頭の首を持ってくるとお金200、壮丁の首を持ってくるとお金100、婦女の首を切ったらお金30、子供の首を切ったらお金20をあげる奨励金の方式を使って原住民をお互い殺し合わせた。

日本植民政府は、武力の以外に教育を通じも原住民を弾圧した。日本植民政府は原住民の地域で蕃童教育所(-原住民の子供教育所-)をたくさん作り、教育所で受けていた教育は主に日本語の学習であった。日本植民政府の目的はこれを通じ原住民の子供が自分の民族の伝統文化や歴史を忘れるようにさせることであった。

1941年末日本は太平洋戦争を起こした。日本の兵力が足りなかったため蕃童化の教育を受けて育った原住民の子供達は‘高砂義勇隊’に編成され戦争に参加された。上の世代は日本軍隊に殺戮にあい、その次の世代の洗脳教育をされて育った子供たちはナンヤンに送られ、戦地で日本軍人の代わりに弾丸の犠牲物となった。まさに二世帯を完全に皆殺しにしたものであった。

いわゆる‘高砂義勇隊’は軍隊ではなく、‘軍の人夫(軍伕)’であった。軍の人夫のやる仕事は日本軍の雑多な業務を受け取ることであった。戦争の末期日本は日本の兵力がますます足りなくなったため、軍事の訓練を受けたこともない高砂義勇隊を第一線に送らせ戦うようにした。

当時原住民の人口で老若男女を全部合わせるとおよそ16万人であった。学者の想定によると、高砂義勇隊は約1万人くらいで、その中の半分以上が命を失い、生きて帰ってきた人もその半分にもいかず、しかも殆ど重傷であった。また神風特攻隊に似ていた‘薫空挺隊’は皆戦死した。

原住民の部落でご主人は‘高砂義勇隊’に編成され、妻はだまされて慰安婦になった家庭が多かった。そして騙された原住民の女性たちがその部落に帰ってきたとしても自分の不幸をあえて打ち明け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ため、原住民の慰安婦の被害状況は世の中にあまり知られなかった。戦争が終わった後も、一部の‘高砂義勇隊’が生還してきたが殆ど酷い重傷を負っていたし、また一部の‘高砂義勇隊’は全然その消息さえなかったのに、20年の後家族に靖国神社から合祀通知書が送られた。甚だしくは一部の‘高砂義勇隊’は生死の確認さえできていないため家族は手がかりもつかめず何も知らなかった。

去る6年の間日本軍国主義と靖国神社を糾弾する度に、台湾の原住民はずっと続けて韓国、沖縄、また平和を愛する日本人の友達と連帯してきた。

我々皆団結して歴史の真相を糾明し、植民と侵略に反対するために努力しましょ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